

3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56.15	↑ 코스닥	743.06
	(-37.64)		(+4.87)
↓ 금리 (미국 9년)	2.936	↓ 환율 (원·달러)	1378.50
	(-0.001)		(-3.90)



北 ICBM 대응, 韓美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軍)이 오전 7시 10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공군은 이날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뉴시스

정몽구·정의선 代 잇는 ‘똑심’ 27년 수소신념 담은 ‘이니시움’

현대차 ‘클리얼리 커미티드’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공개

IMF외환위기에도 담대하게 투자
정몽구 결단력, 정의선 의지 ‘결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원과 결단으로 27간 축적된 기술로 완성됐다.”(장재훈 현대차 사장)

현대자동차가 27년간 수소 기술 개발에 흘린 노력이 담긴 수소전기차(FC EV) 콘셉트카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차는 10월 31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개최된 ‘클리얼리 커미티드(Clearly Committed)’ : 올곧은 신념 행사에서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INITIUM)’을 공개했다. 이니시움은 현대차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승용 FCEV의 상품과 디자인 측면의 방향성을 담은 콘셉트 모델이다.

이니시움은 수소전기차의 강점을 살리고 여유로운 공간과 차별화된 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수소탱크 저장용량을 증대하고 구름저항이 적은 타이어 탑재 등 기술력으로 650km 이상의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다. 연료전지시스템과 배터리 성능 향상으로 최대 150kW의 모터 출력을 구현해 도심과 고속도로에서 보다 향상된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 편리한 충전을 위해 목적지까지 수소 충전소를 경유해 갈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안내해주는 ‘루트플래너’ 기능도 제공한다. 여기에 야의 활동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실내·외 V2L 기능도 탑재했다.

이날 장재훈 사장은 수소사회에 대

한 현대차의 오랜 신념이 결실인 ‘이니시움’이 탄생할 수 있던 배경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결단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장 사장은 “정몽구 명예회장께서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모든 기업이 수소 투자에 움츠릴 때도 담대하게 투자를 진행했다”며 “수소전기차의 ‘퍼스트 무버’로서 수소차 시장을 더 크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대차는 1998년 수소 연구개발(R&D)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했다. 2000년 미국의 연료전지 전문 업체 UTC파워(UTC Power)와 6개월 간 공동 개발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처음 선보였으며, 이후 2004년에는 독자 개발 스택을 탑재한 수소전기차를 개발했다. 2005년에는 환경기술연구소(마북연구소)를 설립하며 수소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정 명예회장의 전폭적 지지로 27년간 현대차 수소전기차 개발이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마북연구소 설립 당시 정 명예회장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젊은 기술자들이 만들고 싶은 차는 다 만들어봐라. 돈 아낀다고 똑같은 차 100대를 만들 필요 없다”며 수소전기차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 명예회장의 결단으로 현대차는 2004년 독자 개발 스택을 탑재한 수소전기차를 개발했고 2013년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투싼ix Fuel Cell’을 양산했다. 이 차는 유럽 관공서를 중심으로 1000대가량 팔렸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m-커버스토리

평당 2억 vs 억대 할인분양 수도권-지방 ‘온도차’ 극심

부동산 양극화

올해 수도권 집값 1.74% 상승
서울 신흥 부촌 ‘마용성’ 급등

지방 매매가격은 1.42% 하락
세종 5.85% 대구 4.01 떨어져
강원 인제 라포레 청약자 0명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다.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지역에 머물렀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물론 서울 안에서도 핵심입지와 주변부, 신축과 구축,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온도차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

◆ 서울, 아파트값 31주 연속 ↑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오르며 31주 연속 상승했다. 대출규제 영향과 매물 적체 등으로 상승폭이 줄긴했지만 상승세는 이어갔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



억대 할인분양에 나선 대구 서구 ‘반고개역 푸르지오’.

23%, 0.13% 올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5.07% 빠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하락률이 각각 4.87%, 5.26%로 모든 시·도의 집값이 동반 하락했다. 앞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2022년 역시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뿐 전국적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가 엇갈린 것은 올해 들어서다. 연초 이후 지난 21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1.74% 오른 반면 지방은 1.42% 떨어졌다.

시·도별로 보면 편차는 더 벌어진다. 서울의 상승률이 4.1%로 전국 1위다. 세종과 대구는 각각 -5.85%, -4.01%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부산 -2.32% ▲제주 -2.01% ▲경남 -1.34% ▲충남 -1.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강남3구·마용성 vs 노도강·금관구
사실 서울에서도 부동산 훈풍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들이 많다. 뉴스에서는 신고가 경신 소식이 쏟아지지만 정작 내 집값은 제자리인 곳이 많아서다.

실제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고점이었던 지난 2022년 10월 대비 회복률은 89%로 지방 88%와 큰 차이가 없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였던 얘기다. 〈4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위법성 조사 착수

당국, 시장 교란행위 엄중 조치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 제출 등 불법행위 확인시 주관사도 처벌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대규모 유상증자를 포함한 여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국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자본시장 이슈’ 전반을 다룬 브리핑을 진행했다. 함 부원장은 영풍그룹·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일 결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쟁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 제출했는지 여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취급사이자 유상증자 주관사다. 14일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여서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동시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기간에 대규모 신주 발행을 진행할 수 있음을 공개매수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사항 허위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이를 미래에셋증권도 알았다면 주관사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행위나 허위기재 등의 문제점

을 따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은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이고, 불법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 검찰에 바로 통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를 금감원 차원에서 ‘즉각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상증자의 목적과 배경, 회사와 기존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당시 밝힌 주주가치 제고 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며 “10일 동안 당국도 정보를 모을 것이고, 정정명령이 필요하다면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김정은 “ICBM 발사, 적 대응 의지…핵무력 강화노선 불변 확인”
▲ 이준석, 대통령실 ‘윤 낙취록’ 해명에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 /사진 뉴시스

▲ 정부, 北미사일 개발 제약 위해 15개 품목 수출 금지
▲ 홍준표 “선거브로커 하나가 나라 휘젓고 있어”



▲ 추경호 “정부, 야당 선심성 예산에 단호히 입장 밝히라”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2년

70년대생 첫 여성 대기업 회장 탄생… 재계 27위권 예상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

백화점 부문 관련 전반 진두지휘
이마트-신세계 계열분리 공식화

공정거래위서 ‘총수’ 지정 가능성
신세계그룹은 12위권, 한단계 하락

신세계그룹이 지난 30일 임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이 백화점 부문 관련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이로써 70년대생 첫 여성 대기업 회장이 탄생했다.

31일 한국CXO연구소는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과 관련해 1970년 이후 출생한 대기업 회장 중 첫 여성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달 국내 주요 200대 그룹과 60개 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 70년대생 이후 회장 31명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신세계그룹

1972년생 정유경 (주)신세계회장의 이번 승진은 재계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부회장을 건너뛰고 총수 계열에 합류했다는 데에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유경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

장의 동생이다.

정유경 회장은 1988년 예원학교를 졸업한 후 1991년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나와 같은 해 3월 이화여자대학교에 진학해 비주얼 디자인을 전공했다. 이후 1992년 미국 로스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 입학해 1995년 졸업했다.

신세계그룹에 입사한 것은 이듬해인 1996년이다. 조선히텔 상무로 입사한 이후 2009년 신세계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15년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승진했다. 그의 회장 승진은 9년만이다.

이번 정유경 회장의 승진을 통해 신세계그룹은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분리를 공식화했다.

신세계그룹은 “정유경 총괄사장의 회장 승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오빠인 정용진

회장 and 각각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를 분리해서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사이먼, 신세계디에프,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을 맡게 된다.

정용진 회장은 SSG닷컴, 신세계프라퍼티, SK컴퍼니, 조선히텔&리조트,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I&C를 총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경 회장을 새로운 그룹의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18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어 독자 그룹으로의 기반을 갖췄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유경 회장이 이끌게 될 그룹의 공정자산은 19조원 규모로, 재계 순위 27위권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 62조원대 자산의 신세계그룹은 분할 후 정용진 회장의 기존 그룹 자산인 40조 대로 줄어 재계순위도 12위권으로 한단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유경 회장이 미등기 회장직을 유지할지, 대표이사로 전면에 나설지에 대해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룹 방향성에 따른 경영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분리 독립이 본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분석하면서도, 과거 계열분리로 그룹이 축소된 사례도 있어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명희 총괄회장이 재계의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을 교훈 삼아 사전에 그룹 분리를 명확히 했다”며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81세인 이명희 총괄회장의 고령화와 50대인 남매의 충분한 경영 연륜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정의선 “수소 전환은 미래세대 위한 것”

>> 1면 ‘정몽구·정의선’서 계속

다시 5년 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넥쏘’를 출시, 현재 수소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대를 이어 수소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정 회장은 올해 초 CES에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인 ‘HTWO’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그룹

사 역량을 결집해 수소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재훈 사장은 “현대차는 온 역량과 마음을 다해 올곧은 신념으로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수소가 쓰이는 세상을 보여드릴 예정”이라며 “수소는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일 뿐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따라서 공평한 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의 수소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산업 생산·소비 동반감소… 반도체 감소폭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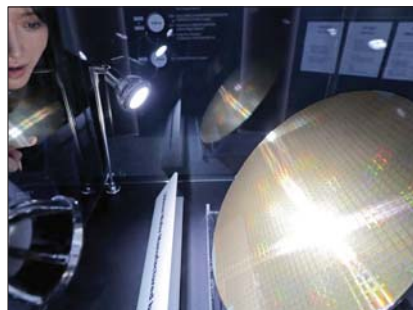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
전산업 생산지수 113.6… 0.3% ↓
8월 증가 후 한달만에 마이너스

지난 9월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함께 줄어들었다. 8월에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반전됐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서는 반도체업종 감소폭(-2.6%)이 커 전반적인 산업생산 후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 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대비 0.3% 하락했다.

생산은 지난 8월 1.3%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서비스업과 광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광공업 생산의 경우 -0.2%였는데 이 중 반도체는 -2.6%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7%, 건설업은 -0.1%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 등이 감소를 이끌었다.

전산업 생산은 4월(+1.4%)에 증가



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2023’에 웨이퍼(집적회로 제조용 얇은 판)가 전시돼 있다. /뉴시스

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이후 지난 8월(+1.3%) 증가했지만 한 달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 달인 8월과 비교해 0.4% 감소했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6.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2.5%),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었다.

백화점 소비는 증가한 데 반해, 슈퍼마켓·잡화점·대형마트·면세점·편의점 등지의 소비는 감소했다. 이 같은 소매

판매는 올해 4월(-0.6%)과 5월(-0.2%) 2개월째 감소한 뒤 6월(+0.9%) 증가로 전환했지만 7월(-2.0%)에 다시 감소했다. 이후 8월(+1.7%) 다시 늘었다가 또다시 뒷걸음질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플러스’로 나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반도체 제조업 등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등의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많고 수출도 잘 되고 있어, (호조세) 흐름이 꺾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8.4% 늘어났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5.6%) 감소한 후 4월에는(+1.6%) 증가했다가 5월(-3.6%)에 다시 감소했다. 6월(+3.5%) 오르며 증가 전환한 후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가 크게 늘면서 +10.2% 증가를 기록했다. 8월(-5.1%)에는 다시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체코와 내년 3월 원전계약, 차질없어”

佛·美 경쟁사 입찰 이익제기에
체코, 한국 원전계약 일시보류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이 신규 원전건설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들의 이익제기를 접수해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으나, 우선협상당사자인 양국 전력당국의 내년 3월 최종 본계약 협상은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국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을

접수한 결과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체코 수출모델은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 일시 보류 결정에 대해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은 “EDF(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익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는 표준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 결론을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

혔다.

체코 전력공사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체코 전력공사는 이날 SNS에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수원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며 “계약협상은 이번 예비조치 명령과 관계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 따라 2025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社告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 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으킬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 제 : 초현실사회: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기조강연 :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

◆ 강 연 : 김현배 답파인 대표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A센터장(변호사)

K-반도체기업 '새판'

삼성 "HBM 판매비중 확대"... TSMC 등 글로벌 협력 예고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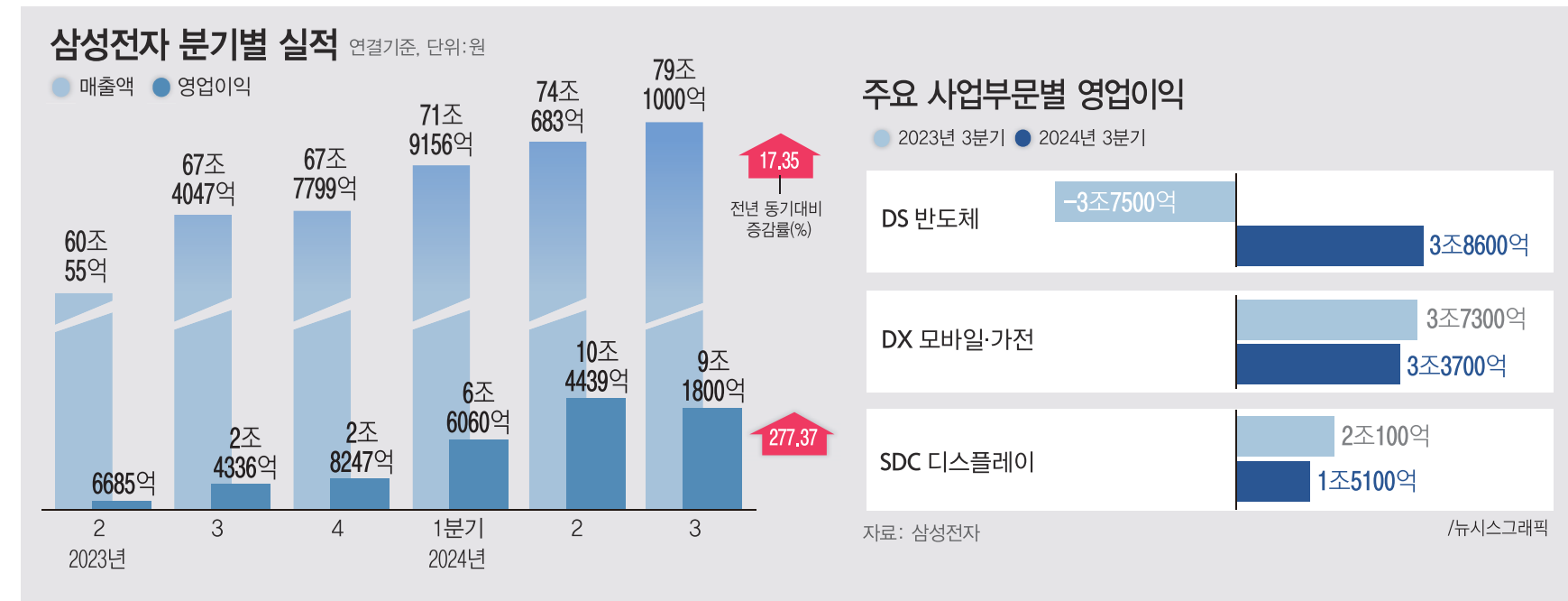
분기실적, 시장 기대치 밀돌아
내년 'HBM4' 통해 반전 모색
빅스비 등 AI 기능 고도화

올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밀도는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콜(설명회)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기능을 고도화하고 향후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주력한다는게 핵심이다. 내년 에 첫 선을 보일 '고대역폭메모리(HBM4)'을 반전 카드로 삼고 TSMC 등 경쟁사와의 협력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HBM3E의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도 시사했다.

삼성전자는 31일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 시장 전망치를 밀도는 3조8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18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77.37% 증가했다. 다만 이는 이미 낮아진 시장 전망치를 14% 가량 밀도는 성적이다.

◆HBM3E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 시사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이날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HBM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성장했으며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양산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HBM 사업 내 HBM3E 매출 비중은 3분기 10% 초중반 수준까지 증가했다. 김 부사장은 "일부 사업화 지연이 있어 전분기 발표 수준보다는 하회하겠지만 4분기 HBM3E 매출 비중은 50% 정



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BM 비중 확대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향 HBM3E 사업화가 지연됐지만 현재 주요 고객사 퀄컴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이에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HBM3E 제품의 엔비디아 납품 임박을 알렸다.

특히 HBM의 주요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6세대 HBM4 제품의 경우 경쟁사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와 손잡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HBM 사업과 관련해 "복수 고객사들과 커스텀 HBM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HBM4 제품은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핵심인 '베이스다'와 관련한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은 고객 요구를 우선으로 유연 대응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 집행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는 "올해 파운드리 투자는 모바일, HPC 고객 수요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시황 및 투자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라인 전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 운영 중이나 금년 캐팩스 투자 집행 규모는 감소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은 생산 인프라 가동 극대화 선단 레거시 노드 고객 주문에 적기 대응하고 최선단 R&D 캐파 투자는 가동 및 수익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DDR5 등 수익성 확보 주력

삼성전자는 DDR5, 서버용 SSD 등

고부가 비중을 확대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하드웨어 사양과 더불어 AI 기능도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사는 최고의 AI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충족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메모리 등의 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성 비서인 빅스비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모델을 온디바이스로 실행하기 위해선 고성능 AP 및 메모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및 솔루션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또 삼성전자는 업그레이드된 AI 음성 비서인 빅스비를 TV 및 가전제품에 적용해 올해 8월 말 글로벌 출시했다. 향후에는 보다 복잡한 기능 수

행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내년 스마트폰 시장이 1% 미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비해 내년에는 1% 미만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디바이스 AI 모델링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갤럭시 폰의 슬립화는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플립은 차별화된 디자인, 커버 스크린으로 프리미엄 가치 제고하겠다"며 "더 강력한 모바일 경험 원하는 소비자들의 신규 폼팩터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자체 AI 칩 개발 속도... 脫엔비디아 나선다

비용 부담, 공급 지연 등 리스크 완화
"시장 반향 얻지 못하면 계류 될 수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들의 탈(脫)엔비디아를 위한 자체 AI 칩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은 관련 시장 점유율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엔비

디아 AI 칩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격은 치솟았고 공급 속도 지연 등이 기업의 리스크로 떠올랐다. 이에 비용 부담을 덜며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 맞춤형 AI 칩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스가 엔비디아 의존도 재고를 위한 자체대 AI 칩 개발에 착수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AI 향(向) 포트폴리오 재편을 예고 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서버 수요 강세가 유지되고 모바일은 일부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익성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한은 "현금결제 수용성 높이는 정책 필요"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수요 보고서
"비대면 결제에도 현금 이용 성향 여전"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코로나19와 같이 비대면 결제방식이 강제되는 상황에서도 현금을 계속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받지 않는 상점·서비스 증가에 따른 불편함도 디지털 소외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31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디지털 이해도와 현금수요 간의 관계(Digital Literacy and Physical Cash Dem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한은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행태조사에 이용된 마이크로데이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자료, 지역별 금융기관 점포 및 ATM 분포자료를 결합해 회귀

분석했다.

분석결과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코로나19와 같이 비대면 결제방식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현금을 계속 이용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팬데믹 기간,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휴대하는 현금을 줄일 확률은 16%에 불과했다.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가 휴대 현금을 줄일 확률이 26%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낮았다.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

자가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32%로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46%)에 비해 12%p 낮았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역의 경우 모바일금융서비스이용을 늘릴 확률은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37%, 이해도가 높은 소비자는 51%로 나타났다.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는 비대면 결제방식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모바일금융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비중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상점·서비스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는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여타 연령층에 비해 현금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 소비자의 금융이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현금결제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 도입시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파격할인에, CR리츠까지… 지방 ‘미분양 무덤’ 해소 될까

〈기업구조조정리츠〉

정부, 부동산 대책

수도권과 핵심입지, 아파트의 조합은 ‘떨뿔한 한 채’의 대표주자가 됐다. 가격이 떨어질 우려도 적는데 대기수요가 많아 언제든 팔 수 있다. 외지인들도 지방 주택을 정리한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놓는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지만 서울은 높아진 분양가에도 수만 명씩 물리는 ‘분양 불패’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로는 공급부족까지 겹쳐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이다 보니 정책이 효과를 내기도 힘들다. 수요가 몰린다고 서울 집값만 골라 잡을 수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 부동산만 분위기를 띄울 묘수도 사실상 없다.

◆ ‘떨뿔한 한 채’로 물리는 돈… 외지인도 관심

부동산은 이미 투자 자산화가 됐고, 지역별 경제 여건 자체가 차별화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3.50%→3.25%)됐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무차별적으로 쏠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투자가 유망한 곳이나 선호하는 지역과 상품으로만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의 82%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이 2.6% 증가한 반면 5대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각각 1%, 0.1% 감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에도 서울 아파트의 25%는 외지인이 사들였고, 예고된 공급불안으로 양극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일자리나 인프라 등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집값을 잡을 방안은 공급 확대다.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마련을 위해 12년 만에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도 결정했지만 공급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빨라야 10년 후에 나올 물량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실수요와 투자수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 지난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뉴시스

“

서울 부동산 분양 불패, 지방은 외면
외지인 투자 증가·수도권 수요 집중
안전 자산 인식, 수도권 투자 매력 ↑

일자리·인프라 부족 지방 침체 심화
지방 미분양 해소 실질적 대책 필요

정부, 지방 SOC 확충 통해 인구 유입
대규모 주택 공급, 서울 집값 안정화
청년층 주거 지원… 지방 정착 유도

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의 입주물량 감소폭이 큰 만큼 매수세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 영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공급 부족 우려와 외지인 매수세, 일부 주요단지의 신고가 갱신 등으로 매수심리 개선은 수도권에 국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지역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나온 부동산이 주 운용대상) 확대 등 지방 수요를 살리거나 비아파트 공급 규제 추가 완화 등의 공급 확대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당장 오는 2027년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절벽이 예고되다 보니 서울 청약시장은 흥행을 넘어 과열 양상이다.

지난달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 1로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분양 정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분양한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대치 에펠루이’의 경우 1순위 37가구 모집에 3만7946명이 접수하면서 평균경쟁률이 1025대 1에 달했다. 청약통장 가점만 점인 84점 당첨자도 나왔다.

◆ 지방인구 줄어드는데… 해법은 없다

전국을 놓고 보면 인프라는 물론 일자리, 그에 따른 인적자원이 모두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원론적으로야 광역교통망과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지만 사업성도 안나오고, 비용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격차 확대가 더 큰 문제인데, 국토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서울·수도권이 블랙홀이 돼 비수도권을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맞춤형 대책을 8·8대책에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지방은 ‘파격 할인’ 등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호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5만4934호가 지방에 집중됐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가 9410호며, 경북과 부산이 각각 7674호, 5862호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만6461호며, 지방 물량이 1만3640호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장의 분양률이 서울을 제외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란 점에서 향후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백광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시중 유동성 급증에 따른 아파트 가격 급등기 이후에 분양한 사업장들의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이 시기 분양 사업장들의 입주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하로 떨어지면 준공후 미분양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한다. 2021년 이후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하로 떨어진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2022년 하반기 이후 분양물은 서울 제외시 전국 대부분이 5대 1 이하로 떨어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서울 부촌 강남3구, 7%대 상승률… 지방, 절반이상 미달

» 1면 ‘부동산 양극화’서 계속

서울 부촌 60억 거래 신기록
지방 미분양 ‘눈물의 땀처리’

구별로 보면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마·용·성’이 올해 들어 마포 6.42%, 용산 6.31%, 성동 9.12% 올랐다. 전통 부촌 강남3구 역시 강남 6.04%, 서초 7.74%, 송파 7.08%로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좋은 입지에 한강변과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서 ‘국민평형’인 전용면

적 84㎡가 60억원에 거래되는 기록도 나왔다. 서초구 반포동 ‘태미안 원베일리’로 3.3㎡(평)당 시세로 따지면 1억8000만원을 웃돌았다.

반면 ‘노·도·강’은 노원 1.39%, 도봉 0.25%, 강북 1.36% 오르는데 그쳤고, ‘금·관·구’도 상승률이 금천 1.46%, 관악 1.24%, 구로 2.03%로 회복세가 더뎠다.

◆ “1억 이상 파격할인”… 눈물의 땀처리

지방에서는 쌓인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억대 할인’을 내세운 단지들도 등장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의 경우 서구 내당동에 들어선 ‘반고개역푸르지오’가 1억원 이상 할인을 내세워 미분양 털기에 나섰다. 올해 2월 분양했던 곳으로 후분양이어서 이미 준공이 완료된 상태다. 발코니 확장에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도 무상이다.

부산에서는 바다 전망이 가능한 ‘테넬 바움294’가 1억원 안팎의 분양가 할인에 더해 가전과 가구도 기본 제공하기로 했다. 후분양으로 지난 3월 이미 입주를 한 단지다.

단 한 명도 청약을 신청하지 않는 단지도 있다.

강원 인제군 ‘인제 라포레’는 이달 초 120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했으나 모든 주택형에 접수자가 없었다. 올해 초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 라온하이츠’도 60세대 분양에서 청약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올해 들어 지방에서 1순위로 공급된 131개 단지 중 절반이 넘는 67곳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했다.

/안상미 기자

내년 국가재정 “건전재정 필요” vs “AI 대전환 맞춰 증액”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공청회

2060년 국가채무비율 81.1% 전망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줄여야

韓 경제 정체… 예산 대폭 증액 필요
AI 인프라 구축에 돈 ‘결정적’ 중요

여야가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10월 3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전환의 시기’에 놓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거나, AI 대전환의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 재정을 대규모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나라살림 씹셈이로는 탄소중립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강화된 건전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행정부의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보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문제는 이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60년 5.8%까지 줄여야 한다. 만일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2024 국가재

정운용계획의 마지막 연도의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인 14.3%로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에) 298%에 달한다”며 “조금 현실화해서 GDP 대비 재량지출비율을 과거 평균 수준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경상성장률 느리게 증가시켜도 국가채무비율은 지금보다 세 배 높은 153%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향후 벌어질 문제에 대해 “첫째, 국가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떨어

지고, 둘째,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셋째,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정책의 효과성도 떨어진다”며 “종합해보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국가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성장 경로 확보를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랩2050의 이원재 이사는 한국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이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체하고 있고 삼성전자, 네이버 등 대표적 대기업이 정체되는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인다.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증가율 3.2%,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 0.8%이기 때문에 전략적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예산안”이라며 “지금 같이 중요한 때에 AI 시대에 맞는 전환

을 해내기는 어렵다.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AI시대의 자본 투입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 이사는 “인프라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부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산업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며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대량 구매해 장착해야 하는데, 구매해서 장착할 만한 돈이 없다. 있다 해도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선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지만, 여야는 야당 주도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 처리 예고에 대립하며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매년 11월말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당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높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영선 좀 해줘라’ 했다”… 민주당, 尹 ‘공천개입 의혹’ 음성 공개

〈전 국회의원〉

尹-명태군 통화 추정 파일 공개
2022년 재·보선 등 뒷거래 가능성
대통령실 “공천 지시한 적 없어”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명태군 씨와 통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공천을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판단이 어렵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여당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윤 대통령과 명 씨로 추정되는 이들의 통화 음성이다. 이 녹취는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군씨의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자체 제보센터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이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다. 이에 명 씨로 추정되는 이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해당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전인 5월9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시장에 공천돼 당선됐고,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체 특감 임명따위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한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고,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녹취 공개에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시장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군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기색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녹취 관련 질문을 받자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추가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사무총장 등 당무를 보는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현재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무감사 등은 원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예진 기자 syj@

이재명 “대남방송 피해 보상 되도록 할 것”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민방위기본법 개정해 기회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31일 북한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한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국

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모인으로 출석해 “방송 소음으로 인해 저희 일상은 무너졌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며 무릎 꿇고 국방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북한의대남방송재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관련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2020년 6월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으나, 올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재개했고, 곧 북한도 대남방송을 다시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의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선거 때 약속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했다.

민방위기본법 제32조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등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태홍 기자

尹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예산, 5.9兆 편성”

‘2024 韓 소상공인 대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신규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두 배 늘려서 1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추가지원(25만원), 온누

리상품권 판매량 확대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행사로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참석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새롭게 펼쳐질
인생 계획 하나하나,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니어의 소중한 인생 2막을 위한, 하나금융그룹만의 솔루션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노후 설계



상속·증여



가업 승계

전문가와 1:1 맞춤 종합 솔루션 제공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핀크 |

BNK금융, 내년 분기배당 도입·50% 이상 주주환원 약속

〈2027년까지〉

2024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위험가중자산 비중 4% 이내 관리
건전성 안정적 유지 속 성장 도모
보통주자본비율 목표치 12.5%
지역특화산업 투자로 동반 성장

BNK금융그룹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과 '지역 동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목표를 추진한다. 주주환원 강화를 통해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으로 지방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부울경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BNK금융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BNK금융은 지난 10월30일 3분기 실적발표 및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다. 3분기 누적 순익(연결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억원(6.1%) 늘어난 7051억원을 기록했다. BNK금융은 '밸류업'과 '지역 동반 성장'에 기반한 경영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BNK금융은 '2024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6.4% 수준에 불과했던 자기자본수익률(ROE) 10%대를 기록 중인 자기자본비용(COE)을 넘는 수준



부산 BNK부산은행 본점.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 본점에 위치해 있다.

/BNK금융

까지 끌어올리고, 위험가중자산(RWA) 비중을 4% 이내로 관리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성장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이어 주주환원을 위한 CET1(보통주 자본비율) 목표치로는 12.5%를 제시했다. 올 3분기 기준 BNK금융의 CET1은 12.31%로, 목표치를 앞두고 있다.

권재중 BNK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기 CET1 목표를 12.5%로 설정하고, 주당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을 최대화하겠다"라며 "2027년까지 50% 이상의 주주환원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년

내에 분기 배당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권 CFO는 "현재 BNK금융은 반기 배당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주총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분기 배당을 준비 중"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의 큰 골격은 DPS(주당배당금)의 우상향으로, 분기 배당도 균등 배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영업 확대 전략으로는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침체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타지방금융 지주가 지역소멸에 따른 경영 위기 돌파를 위해 거점지역 내 영업 비중을 줄이는 것과는 대비된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 1월 초 '지역에 기반한 초일류 글로벌 금융 그룹'이라는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부울경 지역 내에서 입지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회장직속기구 '지역상생ESG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부울경 지역만의 ESG 생태계 구축에 나섰고, 이어 7월에는 지역 산업에 특화된 전문가 육성 과정인 'BNK IB금융가 과정'을 그룹 내에 신설해 가동 중이다.

이어 지난 8월 말에는 '지역 동반 성장 선언문'을 발표하고 가덕 신공항 인프라 지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 보증 확대 등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공개해 추진 중이다.

BNK금융은 거점지역 내에 중점을 둔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수익 모델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영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권 CFO는 "(국내 총생산의) 16% 수준의 셰어를 차지하던 부울경 지역이 현재는 14% 정도만 차지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된 모습"이라며 "다만 영업 기회는 다른 부분으로, BNK금융은 지역 내에서 상품과 영업을 다양화해 성장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손해보험 본사 로비에서 구분옥 KB손해보험 사장(왼쪽)이 행사에 참여한 여성에게 난소 나이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저출생 문제해결 앞장 난소건강 알기 캠페인

KB손해보험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KB손해보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난소 건강상태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출산과 가족계획을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사회공헌 사업이다.

'난 소중해, 난소 중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오는 11월 15일까지 KB손해보험 모바일 앱에서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난소건강 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풀고 소감을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0명에게 '난소 나이자가진단 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난소 건강은 여성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다"며 "이번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베트남 금융인재 초청 디지털금융 혁신 전파

한화생명이 베트남 금융인재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 베트남의 ICT 국립대인 '한베ICT대학교'의 학생 20명과 교수진 5명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수 첫 날 참가자들은 다양한 핀테크 전문가들과 만나 한화의 디지털 금융 및 AI 서비스 사례와 한국 기업들의 핀테크 혁신 사례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0일에는 용인에 위치한 한화생명의 기업 연수원 '라이프파크'에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금융과 기술 융합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31일에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학과와의 교류행사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과 지식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저축은행 업황 개선에도 인수합병은 '시기상조'

한화생명, 한화저축은행 인수 현재 매물 상사인 등 5곳 남아 건전성 제고가 매각 분수령

한화저축은행의 매각이 성사되면서 침체된 M&A(인수합병)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올 3분기 저축은행권이 순이익을 거둔 만큼 긍정적인 신호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화생명은 한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장외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1985억원으로 1주당 2898원에 6160만주를 매수했다. 한화생명은 손해보험, 증권, 운송사에 이어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추가하며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수신 기능이 있는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계열사 간 상호 시너지를 기대할 전망이다.

한화저축은행의 매각은 4년만에 나

온 저축은행 인수합병 사례다. 지난 2020년 우리금융그룹이 아주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주저축은행을 함께 사들였다. 그간 금융당국이 업황 부진에 빠진 저축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여러 차례 빼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인 성과다.

금융권에선 저축은행 업황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파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한 데다 올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NPL(부실채권)을 털어 내면서 건전성도 높였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그동안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을 이익으로 환입하면서 순이익이 늘었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은 상상인·애큐온·HB·OSB·대원저축은행 등 5곳이다. 업계에서는 건전성 제고 여부가 향후 매각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에 한화생명이 품은 한화저축은행의 BIS(국

제결제은행)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5.50%로 적전 분기 대비 2.37%포인트(p) 개선됐으며 상반기 순이익은 47억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화금융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발표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가 예고되는 금융사를 무턱대고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저축은행 인수합병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권에서는 인수합병 활성화를 놓고 물음표를 던졌다. 기준금리가 떨어졌지만 조달비용은 오르는 추세며 리테일(소매금융) 반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아울러 3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가결산 결과인 만큼 진짜 뚜껑은 열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도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에 속도가 붙진 어려울 전망이다. 여전히 업황 회복 단계인 만큼



메리어트와 '서울원' 복합건물 내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 도입을 위한 본계약 체결 후 이성용 호텔HDC 대표(왼쪽부터),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피터 가스너(Peter Gassner)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아시아태평양 개발 총괄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12개 대학 교수진 중심의 대학행사와 세미나, 기업 비즈니스 미팅룸도 함께

구성된다. 호텔 위탁운영은 호텔HDC가 맡을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HDC현산, 서울원에 메리어트 호텔 도입

서울 동북권 첫 5성급 브랜드 호텔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0일 메리어트와 '서울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 복합건물 내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 도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원 내 들어설 호텔은 메리어트 호텔로 현재 제주와 대구에서만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이다.

서울 동북권 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5성급 브랜드 호텔로 12~15층까지 4개 층에 걸쳐 연면적 약 880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메리어트 서울원은 200여 개의 객실과 3개의 레스토랑, 야외 이벤트 테라스, 인도어 풀 등으로 구성된다.

웨딩을 비롯한 각종 연회를 위한 500여 명 규모의 실내 볼룸 및 야외 이벤트 테라스가 마련될 계획이다. 인근

배터리업계, 수익확보 ‘구슬땀’ 내년 전기차 시장 반등 노린다

국내 배터리社 3분기 실적 부진
ESS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집중
美·유럽 전기차 수요회복 대응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겼다. 다만 국내 배터리사들의 주요 시장인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따르는 모양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사들이 3분기 바닥을 찍고 업황 회복세를 맞이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내년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 관측이다.

유안타증권은 최근 ‘전기차·배터리 산업’ 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각각 27%, 16%로 내다봤다. 올해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CO2 배출 규제 회피를 위한 판촉 활동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지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였

다. 3분기 매출 6조8778억원, 영업이익 448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38.7%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전 분기 대비로는 각각 11.6%, 129.5% 증가세를 보였으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기)을 탈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 4660억원을 제외한 영업손실은 177억원으로 전분기(2525억원 손실)보다 대폭 줄어든 규모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지난 28일 컨퍼런스를 통해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출하량 증가에 따른 전사 가동률 개선, 메탈가하향 안정화에 따른 단위당 원가 부담 감소로 IRA 세액공제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3분기 영업이익이 129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46.1% 줄었다. 다만 제너럴 모터스(GM)와 합작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유럽과 아시아 주요 완성차업체(OEM)향 신규 수주 확보, 전력용 ‘삼성 배터리 박스’(SBB) 1.5출시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해 캐즘 극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30일 컨퍼런스를 통해 “내년 완성차 업체들은 유럽 내 판매차량들의 평균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5% 감축해야 하는 규제 강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며 “유럽 내 전기차 정책 지원도 다시 확대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오는 4일 실적 발표를 앞둔 SK온은 이번 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낼 경우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SK온은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315억원 4601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관계자는 “업황이 바닥은 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업계는 보수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해 ESS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포항공과대 특강

“6가지 메가트렌드에 기업 생존 달려”

(AI·DX·우주항공 등)

“지금 산업계 구조 변환 변곡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기술, 그중에서도 핵심 기술 확보 여부가 기업 생존의 핵심”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30일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사장이 대학교 특강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모교인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특강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장 사장은 기업의 생존 여부를 가릴 6가지 메가트렌드(Mega trend)인 ▲Automotive ▲AI ▲Energy ▲Humanoid ▲DX(Digital Transformation) ▲우주항공에 대해 설명했다.

장 사장은 “지금 산업계는 1980년대



삼성전기 대표이사 장덕현 사장이 지난 30일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삼성전기

는 PC 산업, 2000년대 모바일산업을 거쳐 AI 기반 Automation(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스마트팩토리 등)이 발달하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환의 변곡점”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로템, 무인 소방로봇 최초 공개

2024 아시아 기계&제조산업전

무인화, 고속철 등 미래 혁신기술 소개

현대로템이 건물 지하 화재 등 위험한 현장에서 소방관을 대신해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로봇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로템은 오는 11월 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기계 & 제조 산업전(AMXPO)’에 참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현대로템은 무인 소방로봇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과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소가 접목된 미래 혁신 기술을 알린다. 인명을 보호하는 무인화 기술을 비롯해 전기차 부품용 고속·고정밀 프레스, 수소 밸류체인, 고속철 등 고도의 기술력과 노후가 요구되는 사업 솔루션을 소개한다.

먼저 현대로템은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방청과 함께 공동 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을 최초로 선보인다. 무인 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HR-SHERPA)’를 플랫폼으로 화재 진압 장비를 탑



현대로템 무인 소방로봇.

/현대로템

재한 차량이다.

무인 소방로봇의 기반이 된 HR-셰르파는 전동화 차량으로 원격, 무인 운용이 가능해 사람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 군용은 물론 민수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화재 안전을 위한 무인 소방로봇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선보일 것”이라며 “무인화와 전동화 등 진보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미래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르노, ‘그랑 콜레오스’ 패밀리카 시장 인기몰이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호평일색
“상품성 등 기대를 넘어서 좋은 차”

르노코리아가 4년만에 선보인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르노코리아의 내수 판매 5010대 중 무려 3900대의 차량이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일 정도로 패밀리카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같은 인기는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의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에 대한 상품성에 대한 호평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출시 전부터 ‘야심작’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큰 기대를 받았던 차량임에도 그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차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자동차 전문가부터 일반 소비자까지 그랑 콜레오스를 타본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량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들의 시승기에서는 ‘좋은 차’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르노 성수에서 진행된 특별 시승 행사에 참석한 고객들 대부분은 시승에 만족하고, 계약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시승 행사에 참석한 고객 중 80%가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고, 이 중 64%는 즉시 또는 3개월 이내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타봐야 차량의 매력을 알 수 있다”는 평가도 줄을 잇는다. 그랑 콜레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그랑 콜레오스 ‘openR 파노라마 스크린’.

오스의 넓은 실내 공간과 부드러운 주행 성능은 덕분이다.

그랑 콜레오스는 길이 4780mm, 폭 1880mm, 높이 1680mm의 큰 차체에 더해 2820mm의 동급 최대의 휠베이스 사이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동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탑승감을 선사한다. 2열 공간 역시 동급에서 가장 긴 320mm의 무릎 공간을 확보했으며, 폴딩이 가능해 가솔린 모델 기준 최대 2034L의 트렁크 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시트는 그랑 콜레오스의 쾌적함을 더한다. 운전자와 동승객의 쾌적하고 편안한 탑승을 위한 ‘하이컴포트 시트’

는 열선 및 통풍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테크노 트림은 6가지의 전동 조절 기능과 시트 포지션 메모리 기능, 아이코닉 및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는 8가지 전동 조절 기능과 메모리 기능을 탑재해 편안함을 한층 더했다. 여기에 환경을 고려한 세련된 프리미엄 소재를 사용했으며, NVH(소음, 진동, 불쾌감) 저감 기술 역시 운행의 편안함을 더한다.

폼 재질로 흡음 기능을 높인 ‘폼 타이어’ 역시 타이어의 공명음과 지면 접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해 차량의 정숙성을 높인다. 또 차량 전반에 활용한 흡차음재와 완벽한 하부 마감은 고급 세단에 버금가는 최상의 쾌적함을 구현한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판매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랑 콜레오스의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시승 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에코프로씨엔지, 메탈두 ‘블랙매스’ 확보

〈재활용 광물 파우더〉

日 배터리 원료 공급망 확대

에코프로 그룹 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가 배터리 종주국인 일본에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주요 원료인 블랙매스(재활용 광물 파우더)를 확보하게 됐다.

에코프로씨엔지는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메탈두(METALDO)’와 블랙매스 공급 계약 및 중장기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코프로씨엔지가 해외 업체와 블랙매스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탈두는 지난 1962년 설립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업체다. 파나소닉 등 일본 유수의 배터리 업체로부터 폐배

터리를 공급받아 블랙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에코프로씨엔지는 메탈두로부터 받은 블랙매스를 가공·처리해 리튬 등 유가금속을 추출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에코프로씨엔지는 배터리 종주국인 일본으로 원료 수급망을 확대하게 됐다. 에코프로씨엔지는 국내외 업체들과도 원료 공급을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에코프로 그룹은 지난 2020년 에코프로씨엔지를 설립하며 에코프로의 차별화한 이차전지 밸류체인인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Closed Loop Eco-System)’의 한 축인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시작했다.

/차현정 기자

‘홍채인식’ 보안혁신 열쇠… 국내 상용화엔 법·인프라 과제

홍채인식 시장, 6조서 14조 급성장
해외기업 도입 활발… 韓 ‘초기단계’
민감정보 분류… 관리 시스템 필수
기술 발전·개인정보 보호 조화 관건

인간의 눈동자가 열쇠가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홍채 인식 기술이 지문과 얼굴 인식을 넘어 차세대 보안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인프라 문제 등으로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채인식은 눈의 동공과 흰자위 사이에 있는 홍채의 도넛 모양 패턴을 분석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다. 홍채는 약 266개의 고유한 식별 특징을 지니고 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보안성이 높다. 두 사람이 동일한 홍채를 가질 확률은 약 10억분의 1에 불과해 지문(1억분의 1)보다도 유일성이 높다. 홍채는 생후 18개월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아 신뢰도가 높은 생체 정보로 간주한다.

오류 확률 또한 매우 낮다. 홍채 인식의 오류 확률은 100만 분의 1 수준에 불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홍채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과하다. 특히 양쪽 눈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오류 확률이 1조분의 1로 더욱 낮아져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다.

◆6조에서 14조 규모로 성장… 국내 기

업 도입은 ‘초기 단계’

이러한 보안성 덕분에 홍채 인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 모던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4년 약 6조 3000억원(47억 4000만달러) 규모

였던 홍채 인식 시장은 2029년 약 14조 원(104억 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NEC 등 세계 기업들은 이미 홍채 인식 기술을 도입해 보안 강화를 꾀하고 있다. 애플은 혼합현실(MR) 기기인 ‘비전 프로’에 ‘옵티크ID’라는 홍채 인식 기술을 탑재해 사용자 인증이나 애플 페이 결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NEC Corporation도 홍채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생체 인식 시스템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정부 기관이나 공항, 금융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아직 홍채 인식 기술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S8, 노트7 등 일부 스마트폰에 홍채 인식 기능을 도입했으나, 비용과 사용자 편의성 문제로 이후 모델에서 제외했다. 비용과 사용자 편의성 문제로 전면 도입에는 이르지 못했다. LG전자는 현재 산업 현장과 보안이 중요한 구역에서 홍채 인식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홍채 ‘민감정보’로 분류… 안전한 관리 시스템 필수

국내에서 홍채 인식 기술 상용화가

더딘 이유로 비용과 인프라 구축 문제가 지적된다. 홍채 정보는 개인 고유의 생체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집 시 별도의 동의와 안전한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보다 고도화된 인프라가 요구되고, 생체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까지 더해져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홍채 인식 기술이 대중화하려면 기술적 편의성 개선과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수적이다. 기존 홍채 인식 기술은 근거리에서만 인식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며, 조명이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인식률이 저하될 수 있다. 또 생체 정보는 위조나 도난 시 복구가 불가능한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안전한 저장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홍채 인식 기술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과 관련 법규의 정비가 병행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 기술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미래 대비 위한 AI·SW 기반 혁신 필수”

LS그룹 ‘양손잡이’ 경영 가속화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신성장동력
Vision 2030, 자산 2배 확대 목표

LS그룹이 전기·전력·소재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CFE(탄소 배출 없는 전력)와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 관련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해 ‘양손잡이 경영’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LS그룹에 따르면 구자는 회장은 지난해 2030년까지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Vision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초, 신년사에서 그룹의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 제조 안정화 및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 확보 ▲ 미래 신사업·신시장 개척 선도 인재 확보 및 육성 ▲ 경영철학 ‘LS파트너십’ 재무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지난 1월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에게 “양손잡이 경영전략의 핵심인 LS의 원천 기술과 AI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우리 LS만의 미래혁신 기술을 창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LS는 어떠한 미래가 오더라도 AI, SW 등 다양한 협업



구자는 LS 회장이 지난 3월,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 참관, LS 부스를 방문해 LS이모빌리티솔루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LS그룹

과 기술 혁신으로 짧게는 10년, 그 이후의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업 체계를 갖추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LS그룹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해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배터리 소재, 산업용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전기차 전장 제품과 충전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종합 기술을 선보였다. 현장을 찾은 구 회장은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

들이 지난해보다 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LS 또한 전기차 생태계에 정진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 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따라 LS의 주요 회사들은 전력 인프라와 종합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오랜 사업적 경험을 살려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솔루션,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우선 LS는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LS는 EV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 개발을 위해 신규 법인 ‘LS이링크’를 E1과 공동 투자하여 설립했다. LS는 LS이링크를 앞세워 그룹 내 전기차 충전사업 역량을 모으고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S이링크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LS이링크는 대형 운수, 물류, 화물 등 전국의 주요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안정적 실적 등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IPO(기업공개)를 추진, 유입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기술력 강화와 사업 확장을 꾀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T멤버십으로 호텔 파인다이닝 즐겨요”

SKT, ‘Table 2024’ 개최

SK텔레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T멤버십 미식 행사 ‘Table 2024’를 개최한다. Table은 미식과 공연을 함께 즐

길 수 있는 T멤버십 프로그램이다. 팬데믹으로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된다. Table 2024에 초청된 고객들은 12월 24일 오후 6시 5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위키힐 호텔에서 특선 코스 요리

를 즐기며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응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T멤버십 앱을 통해 진행되며 SKT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는 12월 4일 개별 안내되며 선정된 150명 고객은 동반자 1인과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고부가 선박 확대에 ‘6분기 연속’ 흑자

HD한국조선해양, 3분기 영업이익 3984억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7.4% 증가한 398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31일 잠정 공시했다. 6분기 연속 흑자 기록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6% 늘어난 6조 2458억원, 순이익은 49.0% 감소한 1764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한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박 비중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자회사 HD현대중공업의 매출액은 3조 6092억원, 영업이익은 206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5%, 영업이익은 1497.7% 늘었다.

HD현대삼호와 HD현대미포도 각각 1조 6435억원과 1조 776억원의 매출, 1776억원과 3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선박 엔진 계열사인 HD현대마린엔진은 매출 527억원과 영업이익 54억원을, 태양광 계열사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매출 1006억원과 영업이익 34억원을 거뒀다. 사업 부문별로는 조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4% 늘어난 5조 3226억원, 영업이익은 406.4% 늘어난 3782억원을 기록했다.

엔진기계 부문은 HD현대마린엔진 연결 편입 이후의 실적이 반영되고 물량도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한 86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엔진 비중이 확대되며 33.2% 증가한 1024억원을 기록했다. 해양플랜트 부문은 1835억원의 매출과 2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양성문 기자 ysw@

한화큐셀 진천사업장, 안전관리 최고등급

안전관리 강화·체계화 성과 인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장안전관리 강화 및 체계화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모듈 제조 공장인 충청북도 진천사업장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태양광 기업이 이 평가에

서 최고 등급을 취득한 것은 처음이다.

PSM 이행평가는 안전관리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 권위의 정부 공인 평가 제도로,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로부터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P(우수), S(양호), M+(보통), M-(불량)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한 사업장은 정부 관리 대상인 전국의 약 2000개사 가운데 단 5%에 불과하다.

/차현정 기자 hyeon@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밸류업지수 ETF 상장 코앞인데… 수익률·참여율 모두 ‘저조’

오는 4일 ETF·ETN 상장 예정
고려아연 제외 평균 마이너스 수익률
안내공시 61건, 본 공시는 1.07%
정은보 “ETF 출시로 동력 기대”

내달 밸류업지수를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긍정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장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 참여율, 밸류업 지수 상승률 등이 모두 제자리걸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 지수는 출시 당일부터 이날까지 3.56% 감소했다. 출시 이후 점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오는 11월 4일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 12종목과 상장지수증권(ETN) 1종목이 상장할 예정이지만 주식시장의 기대감은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밸류업지수에 실망한 투자자 이미지.

코리아밸류업 지수가 출시됐던 지난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고려아연’이다. 해당 기간 동안 고려아연은 45.05% 상승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등의 이슈가 강력했던 만큼 밸류업 공시에 따른 기대감

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99개 종목(고려아연 제외)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평균 1.69% 주가가 하락했다. 사실상 고려아연을 제외한 밸류업 지수 포함 종목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

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밸류업 공시를 시작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이날까지 나온 밸류업 공시는 총 61건이다. 이는 전체 상장사 2606개사(코스피·코스닥) 중 2.3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중 밸류업 안내공시가 아닌 본 공시에 참여한 기업을 추리면서 1.07%로 비율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 지난 9월 밸류업 지수가 출시되고, 11월에는 밸류업 ETF·ETP 상장 등이 예정돼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모습이다.

이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밸류업 펀드 조성 협약식 및 ETF 출시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전반적인 상장기업들의 참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과 ETF 출시를 통해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유인이 증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도 동력을 얻

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8월 거래소는 삼성전자, SK, LG, 포스코 등 10대 그룹 재무담당 임원을 소집해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당부하기도 했다. 증시 영향력이 높은 대형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밸류업 공시 참여 확산에 힘을 더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계열사를 포함해 그룹 전체가 밸류업 공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달 발표된 코리아밸류업 지수 100종목에는 포함됐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 계열 금융사들은 아직 주주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관련 모멘텀을 보유했다”며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벤트는 밸류업 공시이지만 시기는 미정”이라고 짚었다. 이제는 삼성 계열사들의 밸류업 공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해외주식 투자 열풍… 증권사, MTS 경쟁력 강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증권사 27개사, 올해 상반기 공시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 52.6% ↑
미래에셋증권, MTS 홈화면 개편

국내 주식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강화에 나섰다. 특히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해외 투자 정보와 거래 편의 기능을 추가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선호로 인해 국내 증권사 27개사가 공시한 올 상반기 외화 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은 5583

억원으로 전년 동기(3659억원) 대비 52.6% 급증했다.

외화 증권 수탁 수수료는 증권사가 해외주식 거래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중개수익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의 대부분은 국내 주식이며서 국내 주식의 거래 부진으로 줄어든 수익을 해외 주식의 높은 수수료율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예컨대 국내 거래대금이 20% 감소하고, 해외 거래대금이 40% 증가하면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2.4% 줄어드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MTS 사용 편

의성을 높이고, 해외 주식 거래에 특화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부터 개편된 MTS 홈화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홈 화면은 ‘오늘 주식’, ‘인사이트’, ‘자산’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된다. ‘오늘 주식’에서는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도 볼 수 있으며 종목과 연관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마켓’이라는 공간을 통해 해외주식 시장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자사 MTS ‘한국투자’ 앱의 홈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특히 해외주식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해 별도의 홈 화면을 신설했다. MTS 접속 시간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내 홈이, 이후부터는 해외 홈으로 전환된다. 배당락이 임박한 미국주식, 인기 있는 미국주식과 ETF 랭킹,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등 해외 투자 관련 콘텐츠도 홈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중소형 증권사들도 MTS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사 대표 MTS인 ‘스마트엠(SmartM)’과 국내·해외 소수점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MTS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편을 준비 중이다. 한화투자증권의 신규 MTS

는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된 차별적 고객 경험, 특화된 해외투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안타증권은 이달 새로운 모바일 투자 솔루션 ‘뉴 티레이더M’을 오픈했다. 국내 및 해외 주식·선물옵션은 물론 금융상품 매매와 자산관리까지 하나의 앱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투자자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증권사 간 거래 플랫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이동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각사들이 해외주식 투자에 효과적이고 편리한 MTS 개편에 대거 투자중”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MTS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외적 호재’ 바이오株, 목표주가 줄상향

美 금리인하·생물보안법 통과 영향
삼성바이오로직스 ‘4兆 클럽’ 가능성

미국발 호재가 불려온대외적 요인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선전이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은 바이오 기업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황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바이오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높이는 추세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종목 중 바이오 산업군 내 대표기업 10종목으로 구성된 ‘KRX 바이오 TOP 10 지수’의 성장세도 가팔랐다.

1년여 전인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88.05에 불과했던 지수는 이날 기준 2375.71을 기록했다. 이는 약 49.6% 상승한 수치다. 3개월 전과 비교해도 해당 지수는 8.81% 상승했다.

이는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생물보안법 통

과’라는 호재가 바이오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국내의 기준금리 인하되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난다. 자금 유동성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조달도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아울러 통과가 유력한 미국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바이오경제 육성과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하원에서 306대 81로 통과되면서, 초당적 지지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떤 정권이 뽑혀도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국내 바이오주 상승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코스피에서 단 두 종목뿐인 ‘황제주’(주가 100만원 이상) 중 하나이자, ‘국내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이날 종가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창사 이후 최초로 3조원을 넘어 서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처음으로 연매출 ‘4조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월 중 10여곳의 증권사(하나·대신·KB·메리츠·LS·다올투자·유진투자·LS·BNK투자·미래에셋증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는 115만원부터 135만원 사이다. 현재 주가(105만9000원) 대비 최소 14.77%에서 최대 34.73%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證, 퇴직연금 서비스 이용수 403만회

MTS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 제공
연금수령체험 등 오픈하며 이용 급증

NH투자증권의 모바일앱(MTS) 퇴직연금 서비스 누적 이용수가 400만회를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MTS를 통해 통합연금자산, 연금준비진단, 연금 목표포지셔닝, 퇴직연금픽(PICK), 연금수령체험 등 차별화된 퇴직연금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합연금자산을 시작으로 연금준비진단과 퇴직연금픽(PICK)을 순차적으로 오픈해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연금수령체험, 9월 연금목표포지셔닝을 오픈하면서 이용수가 급증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이날 기준 서비스 누적 이용수는 403만회로 퇴직연금 실물이전일이 가까워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서비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면 매일 1만회 가량 조회된 셈으로 높은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수령체험 서비스’는 NH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제공하는 비대면 연금수령 체험서비스로 NH투자증권 연금계좌 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자산까지 포함해 연금자산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대상으로 절세를 고려한 연금수령방법을 추천하고, 연금수령방법별 맞춤형 절세 포인트와 예상 세금, 세후 연금수령액까지 비교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모바일 솔루션에 대한 인기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라인업도 확대했다.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과 공모펀드 상품 라인업을 증권업 최대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실시간 투자 가능한 ETF 상품 라인업은 727개 수준이다. /허정윤 기자

자존심 건 신작 대거출격… 게임사, 지스타서 승부수 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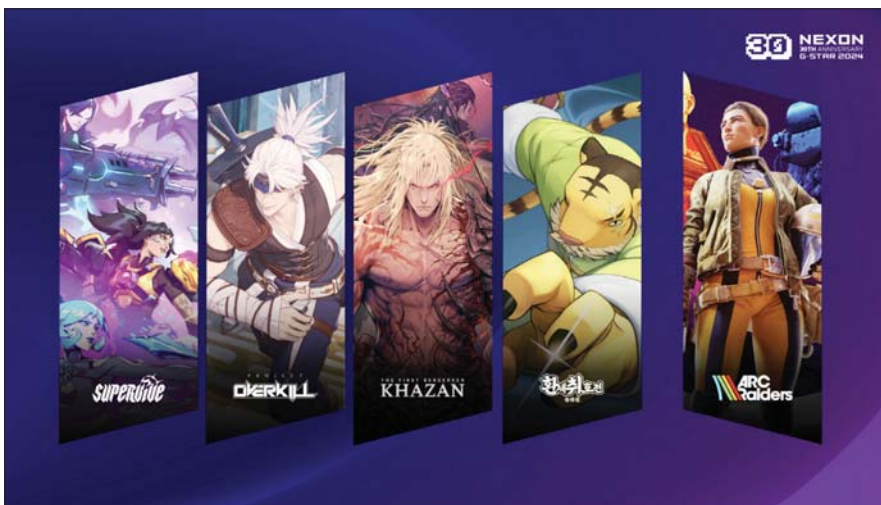
국제게임전 지스타 14일 개막

넥슨 슈퍼마이크로 등 신작 5개 선보여
떨어비스 신작 IP 활용 출격 나서
크래프톤 인조이·프로젝트 등 첫 선

국내 최대 게임 전시 박람회인 '지스타' 개막이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게임사들이 지스타에서 선보일 신작들을 예고하고 있다. 현장에서 신작을 소개하고, 게임 시연을 통해 유저들로부터 직접 피드백을 받는 등 소통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2024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신작 게임과 신규 지식재산권(IP)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지스타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최로 매년 11월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게임 산업 전시 박람회다. 2005년 처음 개막



넥슨의 지스타 2024 출품작 5종 공개 관련 이미지.

/넥슨

한 이후, 현재까지 지스타는 게임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신작을 소개하며 게임 팬과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자리 잡았다. 정식 명칭은 종합 게임 전시·거래 박람회(Game Show & Trade, All-Round)며 이를 줄여 지스타(G-STAR)로 부른다.

이번 지스타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신작 출품작을 예고하고 나선 곳은 넥슨이다. 넥슨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 '프로젝트 오버킬', '퍼스트 버서커:카잔', '한세취호전 온라인', '아크 레이드스' 등의 5개의 게임 신작을 지스타에서 선보인다. '아크 레이드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4종은 지스타 행사 현장에서 직접 시연이 가능하다.

기존 IP 기반이 아닌 신규 IP를 활용해 새롭게 소개되는 신작도 있다.

떨어비스는 출시 예정작인 '붉은사막'을 앞세워 지스타 출격에 나선다. '붉은사막'은 새로운 세계관과 캐릭터를 기반으로 완성된 개방형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게임 내 설정 지역인 '파이델' 대륙에서 사명을 위해 싸우는 용병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떨어비스는 지스타에 총 100부스의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떨어비스 관계자는 "떨어비스가 자체 개발 엔진인 블랙스페이스 엔진에 기반한 고품질 퍼포먼스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삼성전자, AMD, 스틸시리즈, 시디즈와 손잡고 독특한 스타일의 전투 게임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래프톤 역시 '인조이', '프로젝트

아크' 등 신규 IP에 기반한 게임을 선보인다. 특히 '프로젝트 아크'는 이번 지스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5대 5 팀 기반의 슈팅 게임이다. 인플루언서 및 E스포츠 선수와 함께하는 대전 이벤트와 함께 현장 시연에 참여한 관객들의 게임을 e스포츠 중계진이 해설하는 특별 이벤트가 예정됐다.

이 외에도 하이브IM의 대규모 역할 수행게임(MMPRPG)인 '아키텍트:랜드 오브 액자일', 네오위즈의 '안녕서울:이태원편' 등이 지스타 출품작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지스타 출품작을 보면 신작 중에서도 신규 IP를 활용한 신작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스타 행사가 끝나고도 앞으로 계속 게임 캐릭터와 스토리가 다양화된 콘텐츠 중심의 신작 게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미니언즈·나툰즈 만나요” 킨더조이 에디션 선보여

매일유업, 내년 1월까지 한정판매

매일유업은 오는 2025년 1월까지 초콜릿 브랜드 '킨더조이'에서 '킨더조이 미니언즈 에디션'과 '킨더조이 나툰즈 에디션'을 한정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킨더조이는 달걀 모양 초콜릿 제품인데 절반은 초콜릿으로, 나머지 절반은 귀여운 모양의 장난감으로 구성되어 맛과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한정판 미니언즈와 나툰즈 에디션은 각각 8종의 장난감으로 출시됐다. 미니언즈 장난감은 벽이나 유리창에 붙었다가 뽀글 수 있게 접착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보다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다. 나툰즈는 코끼리, 코알라, 펭귄 등 8종의 귀여운 아기동물 장난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초콜릿은 두 겹의 밀크크림과 코코아 크림 위에 바삭한 웨하스 볼 2개로 쌓여 있어 달콤하고 바삭한



매일유업이 달콤한 초콜릿과 귀여운 장난감 두 가지 즐거움을 전달하는 '킨더조이 나툰즈 에디션'을 선보인다.

/매일유업

식감을 선사한다. 킨더조이 미니언즈·나툰즈 에디션은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아울러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이탈리아 기업 페레로와 파트너십을 맺고, 페레로 로쉐 초콜릿을 비롯해 킨더 초콜릿, 누텔라, 페레로 아이스크림 등을 국내 유통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확대로 소비활성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온누리상품권 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3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만큼 취지를 최대한 살려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상품권을 지속 확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은 1950년 이후에 형성된 청주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힌다.

육거리종합시장 유현모 상인회장은 “시장에서 창업하는 2~3세 청년상인 비중이 높은 편이고 유명 점포들도 많



아 그런 점포들이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오 장관은 “전 통시장을 방문하다 보면 시장에서 창업하는 2~3세 청년상인이 많이 늘어난 것을 접하게 된다”며 “육거리종합시장도 그 중 한 곳으로 기존 상인과 청년상인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현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젊은 청년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됨으로써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시장 전체에 활력을 주는 거 같다”며 “정부도 세대교체와 고객층 전환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젊은 소비자층 유입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에 여러 가지 노력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한양행, 기업·주주 가치 제고 나섰다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유한양행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한다고 31일 공시했다.

유한양행은 우선 기업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매출 성장’과 ‘연구개발 역량’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한양행은 오는 2027년까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CAGR)은 10%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 이상으로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사업,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본업에서 결실을 맺겠다는 것이 유한양행 측의 설명이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유한양행은 매

년 1건 이상의 기술수출, 매년 2개 이상 파이프라인 신규 임상 진입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제2의 렉타자’ 발굴 등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은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가 선순환을 이루는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환원 정책도 내놴. 주주환원과 주당배당금을 30% 이상 증액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주환원율은 배당총액(보통주+우선주)과 자사주 취득·소각액의 합을 당기순이익(별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를 위해 유한양행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주 1%를 소각할 계획이다. 해당 규모는 주가를 15만원으로 가정해 약 1200억원 수준이다.

/이청하 기자

삼성중공업 3582억 LNG운반선 계약

삼성중공업은 아시아지역 선사와 3582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선박은 2027년 6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5척(56억달러)을 수주했다. 올해 수주 목표 97억달러의 58%를 달성했다. 25척 중 LNG운반선은 22척,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은 2척, 셔틀탱커는 1척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선사들에 따르면 향후 LNG운반선 발주는 연평균 70척에 이를 전망”이라며 “현재 협상중인 LNG운반선, 친환경 컨테이너선 간선 등을 통해 올해 수주목표 달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디스플레이 ‘색 인지 차이 평가법’ 국제표준 공식 제정

LG디스플레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새로운 화질 평가법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자사가 고안한 ‘색 인지 차이 평가법’이 국제 표준(Technical Specification)으로 공식 제정됐다고 31일 밝혔다.

IEC는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하는 세계 3대 표준화기구로, 세계 주요 제조사들은 IEC 표준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고 있다.

색 인지 차이란 디스플레이가 구현하는 동일한 색상을 시청자마다 다르게 인지해 색 왜곡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같은 흰색을 보더라도 시청하는 사람에 따라 ‘푸른색이 섞인 흰색’, ‘노란색이 섞인 흰색’ 등 서로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산필리포증후군 A형 혁신신약 현황 발표

GC녹십자, 노벨파마와 공동개발

GC녹십자는 ‘산필리포 커뮤니티 콘퍼런스 어드밴스 2024’에 참석해 노벨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 IIIA) 혁신신약 ‘GC1130A’에 대한 비임상연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10월 29~30일 개최된 ‘어드밴스 2024’는 미국 최대 산필리포증후군 환우회인 산필리포 치료기금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환자와 가족, 임상, 제약사들이 산필리포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토픽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직접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하는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GC1130A는 최근 미국에서 임상1상 시험 계획(IN D)승인을 받고 진행 중으로 임상과의 환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해파란 황산염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아직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매우 크다.

/이세경 기자 sei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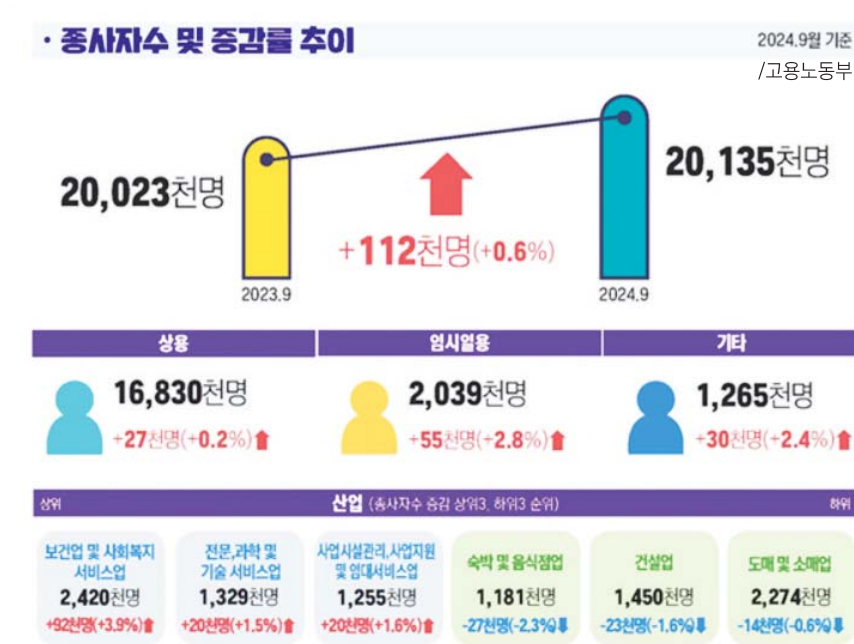
사업체 종사자 11.2만명 늘었지만, 입직·이직률 ‘감소세’

고용부, ‘9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입직·이직 줄고, 고용 유동성 둔화
임금 인상에도 실질임금 소폭 증가
입직자 8.5%, 이직자 8.1% 감소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이직자수는 각각 8.5%, 8.1% 감소했다. 명목임금은 3.4% 올랐지만, 실질임금이 1.4% 증가하며 임금 인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9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2002만3000명)대비 0.6%(11만2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는 0.2%(2만7000명),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종사자는 각각 2.8%(5만5000명) 2.5%(3만명) 늘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수는 1665만1000명에서 1674만2000명으로 0.5%(9만1000명) 늘었다. 300인 이상은 339



만3000명으로 0.6%(2만1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2000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만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만명

↑) 순이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 19%)은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만7000명), 건설업(-2만3000명), 도매 및 소매업(-1만4000명)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사업체 종사자 중 기타종사자를 제

외한 입직자(91만1000명)와 이직자수(88만8000명)는 전년 동월 대비 각 8.5%(8만4000명), 8.1%(7만8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입직률은 5.3%에서 4.8%로 0.5%포인트(p) 하락했으며, 이직률은 0.4%p 하락한 4.7%를 기록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입직자는 7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인 8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직자는 78만5000명으로 7만9000명 줄었다. 반면,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는 12만명에서 12만2000명으로 1.5%(2000명) 증가했으며, 이직자는 10만 3,000명으로 1.4%인 1000명이 늘었다.

8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387만원으로 전년 동월(374만2000원)대비 3.4%(12만8000원) 증가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7만9000원으로 1.4%(4만6000원) 올랐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권익위

“악성민원 받은 공무원 기관서 적극 보호해야”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A구청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여성 공무원인 B씨는 지난 5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B씨와 동료 직원 등 진술에 따르면 B씨가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칼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김대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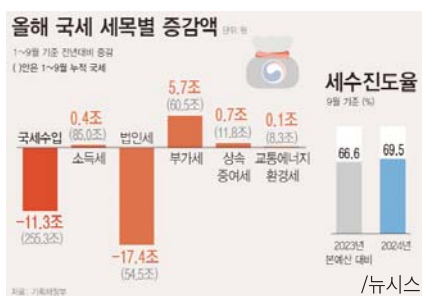
올해 국세수입 11.3조 덜 걷혀… 법인세 17.4조 감소

기재부, ‘9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기업실적 하락에 납부실적 감소 영향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등에 1조 ↓

올해 1~9월 누적기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대비 17조 원 넘게 덜 걷혔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11조3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기업들의 2023년도 실적이 저조했던 탓에 납부 실적이 크게 줄면서



법인세수만 무려 17조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 수준으로 줄고, 세율이 인하되면서 1조 원가량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액이 줄어 3000억 원 빠졌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기조 속 이자소득세와 취

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9.5%로 지난해(77.5%) 대비 8.0%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한 세입 예산 중 3분기 말까지 70%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9월만 봐도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는데, 부가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9월 부가세는 전년동월대비 1조4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9월 법인세는 9조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관세는 2000억원 각각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2000억 원 늘었다. 그외 세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지난 8월 중간에 납 신고분을 8~9월 분납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에서 법인세가 납부되고 있다고 봤다. 또 “3분기 GDP 중 수출이 감소한 건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11월 중순에 3분기 상장기업 실적이 나오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3분기 2.9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 지원 현황

정부가 우리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걸림돌이 되는 애로를 해소한 성과가 올해 3분기 투자금액 기준 2조9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한 실물경제지원팀이 올해 3분기 기준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입지·인허가 등 각종 투자 애로 9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소된 기업 투자 애로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

화 등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이 방문한 지필로스는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서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22년 제2공장을 증설했으나, 수전해시스템이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입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배추값 안정세에 중국산 추가수입 잠정 보류

농식품부, 농업인과 상생 모색

중국산 배추의 추가 수입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배추 값이 지난 3분기 치솟음에 따라 중국산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가격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어, 국내 생산자들이 외국산에 거부감을 드러냄에 따라 잠정 중단 또는 보류를 결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30일 저녁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수입 물량(64톤)을 3개 업체에서 가져간 뒤 현재는 수요가 없다”며 이 같은 보류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중국산 배추 수입을 1100톤 규모로 잡았었다. 이후 1차로 16톤, 2차로 48t 들여온 물량이 소진된 이후 수요가 없다는 게 송 장관의 설

명이다.

이어 ‘배추를 수입하면 배춧값 난리난다. 수입하지 말아 달라’라는 농업인들의 최근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가들은 배추의 경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육이 중요하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50헥타르(ha)가 줄어도 나머지 면적에서 3kg짜리가 4kg으로 늘어날 정도로 생육이 좋으면 50ha쯤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현장에서 면담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했다.

배추 도매가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소매가 반영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에서 매주 목요일 가격을 반영하는데, 2주 전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종=김대환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뽕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출연 김남호 김늘메 김준희 김민주 임재혁 정지환 이서정 이하정 차은진 김민성 서찬양 장이슬 석우성 손슬기 윤환호 김진솔 정다운 최린 김상원 서태이 양승환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자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서울시, 내년 예산 48兆 편성계획 못 “건강·안전 지키고 미래 준비”

올해 45.7兆 대비 5% 늘어난 규모
저출생 해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세권 경험 위한 지하철역 탈바꿈
여성·1인 사업장에 안심벨 등 보급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모든 시민이 365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는 활기찬 서울,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서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서울, 범죄·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서울, 권역별로 골고루 발전된 서울...’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2025년 서울의 모습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 증가한 규모다.

시는 2025년 예산을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촉촉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총 7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다.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시설비, 출산가구 지원을 통해 출생률 반등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3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2025년 서울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건강이다.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을 운동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스테이션’에 이어 내년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민 참여 건강 축제·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도 힘을 쏟는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찾아내 신속하게 경영 자금을 지급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팅부터 사후 관리까지 패키지로 지

원한다.

아울러 시는 촉촉한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 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441억원을 투자해 세심한 돌봄을 실천한다는 복안이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 여성·1인 사업장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 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의 매력 업그레이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도시의 밤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 쇼, 올해 780만명이 다녀간 국제정원박람회 등 시내 곳곳에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의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서북권에는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만들고, 동북권에는 어울림 체육센터와 사진미술관을 설치하며, 서남권에는 서서울미술관을 조성한다. 또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이동수단 도입을 확대해 교통소외 지역을 최소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의대 정원 증원’ 정시모집 변화

군 배치 변경·수능 지정과목 폐지 늘어

선발 인원 전년 대비 약 30% ↑
인하대 의대, 다 → 가군으로 변경
확통·사탐 과목 선택해도 지원 가능

올해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으로 정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의대 인원이 전년보다 약 30% 늘었다. 특히 지역 인재전형 모집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일부 대학은 의대 선발 군을 변경하고 선택과목에 따라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한 대학도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다.

31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 인원(일반전형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331명 늘어났다. 작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다. 수시에서 모집 정원을 모두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합하면 실제 정시 선발 인원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의예과 기준 정시 이월 인원은 약 40명이다. 특히 올해는 수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증가해 이월 규모도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시에서도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확대됐다. 올해 정시를 통해 의대는 일반전형 192명, 지역인재전형 139명을 선



지난 13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뉴시스

발한다. 올해 정시에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하는 대학은 또한 강원대, 경북대, 계명대 등이다. 경북대와 계명대가 위치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작년 17명에서 올해 50명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시 선발 군 배치를 변경한 대학도 있다. 올해는 인하대 의대가 ‘다’군에서 ‘가’군으로 선발 군을 변경했다. 조선대와 충남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선발 군을 바꾼다.

특히, 인하대의 군 배치 변경은 입시 결과에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다. 지난해 ‘가’군 성균관대에 지원했던 수험생들이 동시에 많이 지원한 대학 ‘나’군의 경희대와 ‘다’군의 인하대였지만, 인하대가 ‘가’군으로 변경하며 수험생들

이 ‘가’군 내 선택권을 인하대가 아닌 다른 의대에 내줄 가능성이 크다고 진학사는 예상했다. 대신, ‘다’군에 남아 있는 순천향대 의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화는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 대부분 의대가 ‘확통과 통계’나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지원을 제한했지만, 올해는 이를 허용하는 대학들이 늘었다.

다만, 대부분 대학이 수학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확통이나 사탐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합격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의대 정시는 매우 작은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 대학별 전형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특히, 성균관대나 인하대처럼 군 배치가 변경되거나 모집 인원이 늘어난 대학들은 충원율과 지원 패턴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관리역량 강화

교원 등 총 250여명 대상 연수 실시
응급상황 대비해 학생 교육활동 보호

서울시교육청이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원 등 총 250여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당뇨병 학생 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라 당뇨병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교직원들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활동 중 당뇨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 건강증진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영양교사 등 건강증진부 교직원과 담임교사 등 총 250여명이 연수 대상이다.

연수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당뇨병교실 전문가와 함께 ▲당뇨병 관리의 이해 ▲건강증진부 구성원의 역할 ▲저혈당과 고혈당 대처법 ▲영양관리 ▲학생의 심리 사회적 관리 ▲인슐린과 글루카곤 주사법 의료 실습까지 특화교육을 개설해 운영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연수를 통해 그간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학교 교직원의 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체험학습, 운동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상황 우려로 인해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당뇨병 학생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당뇨병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30일 연구중심 병원인 스위스 바젤대학 병원을 찾아 하인츠 뢰블리 교수로부터 관련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포항시-스위스, 바이오·스타트업 발전 협력

스위스 바젤시·바젤란트주 방문

포항시는 지역의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0일과 31일 양일간 유럽 최대 바이오산업 중심지이자 스타트업 발전의 핵심 거점인 스위스 바젤시와 바젤란트주를 방문,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 30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중심 병원 바젤대학 병원과 세계 공중보건과 역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스위스 열대 및 공중보건 연구소(TPH)’, 스위스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인 바젤대 혁신센터와 이노베이션 파크 바젤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연구중심 병원인 바젤대학 병원을 찾아 포항시의 핵심 공약인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 병원 설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며, 의사와 학자인 하인츠 뢰블리(Heinz Laubli)

교수와 면담을 갖고 질병 치료 연구와 트너로 지역의 포스텍, 한동대 등 우수한 지역 R&D 기관과의 상호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스위스 열대 및 공중보건 연구소(TPH)를 방문해 위르그 위칭거(Jurg Utzinger) 연구소장으로부터 공중보건의 중요성과 AI를 활용한 고령화 시대 미래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TPH는 포항의 우수한 바이오 R&D 인프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또한 바젤대 혁신센터와 이노베이션 파크 바젤을 방문해 크리스티안 슈나이더(Christian Schneider) 센터장을 면담하며 스위스의 스타트업 지원체계와 기술이전 및 투자자 매칭 등 액셀러레이션 과정, 성공 사례를 청취하면서 포항시 창업생태계와의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박차

해양레저관광상품 판매... 6억 투입

경기도는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즐기는 경기바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올해 6억원을 투입해 17개 해양레저 관련 업체와 손잡고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바다 위에서 제부

도세길, 누에섬, 탄도항, 갯벌 등의 풍경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장 2.12km의 해상 케이블카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 ▲갯벌체험 후 제부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제부리어촌체험마을 갯벌체험’ ▲시흥 시화호에서 요트와 보트, 배들 보드까지 직접 운행해 볼 수 있는 ‘패들보드 체험’ ▲화성 전곡항 마리나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카발리에 요트클럽’ 등이 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승진... ‘신성장동력 확보’ 매진

HYUNDAI

현대백화점그룹 정기 임원인사 승진 29명, 전보 31명 등 총 60명

김창섭·김성일·이희준 부사장 승진 박장서, 면세점 대표이사로 내정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겸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14년 만에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31일 승진 29명, 전보 31명 등 총 60명에 대한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 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지난 2009년부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14년만에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한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보좌하며, 단일 지주회사 체제의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그룹 경영 전반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즉, 지난해 11월 출범한 현대백화점 그룹 단일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를 중심으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공동경영을 이어가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겸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 /현대백화점

에서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회장이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정교선 부회장이 현대홈쇼핑 회장으로 승진하게 된 배경에는 한때 캐시카우로 불리던 홈쇼핑의 업황 악화와 무관치 않다. 악화일로를 걷는 국내 홈쇼핑 시장 환경하에서 현대홈쇼핑의 성장 둔화도 지속되어 기존 사업의 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2009년부터 16년간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아온 정교선 부회장의 경력과 전문성에서 발현되는 통찰력과 추진력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문 경영인은 중·단기적 사업 전략에 대한 계획 및 추진에 나서고,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겸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회장은 그룹 차원의 신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홈쇼핑의 장기적 성장전략 구상 및 추진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김창섭 영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

다. 김창섭 부사장은 사업개발담당 임원으로서 더현대 서울 출점을 주도했고, 더현대 서울 점장 재직시 더현대 서울의 위상을 끌어올렸으며, 최근 부산에 신개념 리테일 공간인 커넥트현대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기도 했다.

ICT전문기업인 현대퓨처넷을 맡고 있는 김성일 대표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고, 현대IT&E 합병 이후 조직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대바이오랜드 이희준 대표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네슬레 헬스사이언스와의 협업을 통해 건식 사업을 확대하는 등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둬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면세점의 경우 박장서 영업본부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박장서 신임대표는 1992년부터 33년째 국내 주요 면세점에서 면세점 영업을 담당해 온 면세사업분야 전문가로 2020년 현대면세점에 입사한 이후 영업본부장을 맡아왔다.

종합 전자재 기업인 현대L&C 신임

대표에는 이진원 현대그린푸드 푸드서비스사업본부장이 내정됐다. 이진원 대표의 현대백화점, 현대리마트, 현대그린푸드에서 재경총괄을 담당하며 경영능력을 검증 받았고, B2C사업은 물론 B2B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매트리스 전문 기업인 지누스에는 현대L&C 대표를 맡고 있는 정백재 대표가 내정됐다. 정백재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하는 현대에버다임의 재경실장과 현대L&C의 경영 전략본부장 및 대표를 역임했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돼 발탁됐다.

이번에 토털 복지 솔루션 기업인 현대이시웰 대표로 내정된 박종선 대표는 현대홈쇼핑 온라인사업부와 영업전략 담당을 거쳐 2021년 현대이시웰로 자리를 옮겨 상품운영본부장을 맡다가 대표이사로 승진한 사례다. 박 대표는 온라인물 유통과 마케팅 부문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동원그룹, 외부인재 영입·여성 CEO 발탁

계열사 임원인사 단행
시스템즈 2차전지 대표에 정용욱
소재사업부문 총괄임원에 신동만
동원CNS 대표에 첫 여성 이영란

동원그룹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를 영입·발탁해 각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총괄임원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대표이사를 선임한 계열사는 동원시스템즈와 동원CNS다.

먼저 동원시스템즈는 신사업의 핵심인 2차전지사업부문 대표이사에 LG에너지솔루션 출신의 정용욱 사장(사진)을 선임했다. 정용욱 신임 대표는 LG에



너지솔루션에서 2차전지 해외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했으며, 폴란드 생산법인장과 유럽지역 대표를 지냈다. 정 신임 대표는 향후 2차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과 배터리캔, 셀 파우치 제조를 총괄하며 동원시스템즈의 신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원시스템즈의 연포장재·산업용 필름 등을 생산하는 소재사업 부문에는 글로벌 화학기업인 듀폰코리아 대표이사 출신의 신동만 부사장을 총괄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와 더불어, 영업현장의 판매직원

들을 밀착 관리하는 계열사인 동원CNS는 동원그룹 최초로 여성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영란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동원그룹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유통영업, 판촉교육 등을 총괄한 현장 전문가다. 동원그룹 임직원들 사이에서 포용의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이번 승진에 중책을 맡게 됐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춘 베테랑을 발탁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 대표이사로 임명했다”며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롯데온, 연중 가장 강력한 ‘쇼핑대전’ 돌입

퍼스트 먼데이 블랙라벨 등 행사 진행

유통업계가 ‘롯데온’을 필두로 11월을 맞아 본격적인 연말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롯데온세상 쇼핑 페스타(온쇼페)’로 연말 쇼핑 대전의 포문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롯데온은 이번 행사 실적이 전년 행사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고물가와 침체된 소비시장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롯데 계열사 상품 위주로 할인폭을 크게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롯데온은 롯데의 대표적인 e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유통계열사뿐 아니라 타 계열사들과도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연결형 게이트웨이 역할에 더욱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롯데온은 연말 쇼핑 행사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퍼스트 먼데이 블랙라벨’ 행사를 진행하며, 11월 6일까지는 ‘얼리 윈터 페스타’도 진행한다.

‘퍼스트 먼데이’는 롯데온에서 매월 첫번째 월요일에 진행되는 할인 행사다. 11월은 유통업계 쇼핑대전이 있는 달인 만큼, 연중 가장 강력한 혜택의 퍼스트 먼데이 블랙라벨 행사가 마련된다. 롯데온을 한 번도 이용해본 적 없는 고객은 첫구매 맞춤 쿠폰팩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전 방문고객은 롯데카드로 결제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스페셜 쿠폰도 챙길 수 있다.

‘얼리 윈터 페스타’에서는 24년 F/W 신상품과 지난 시즌 인기 베스트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최빛나 기자

코코이찌방야, 송탄 신장점 ‘신장개업’

평택국제중앙시장 근처 위치

카레전문점 코코이찌방야가 지난 1일 ‘송탄 신장점’을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평택국제중앙시장 근처에 위치한 코코이찌방야 송탄 신장점은 약 65평 공간으로 마련됐다. 매장 인근은 미군공군부대가 있는 특수 상권으로,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다. 거주 인구 및 직장인과 함께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해당 매장은 평택 험프리스점에 이어 선보이는 평택 특수 상권 내 두 번째 코코이찌방야 매장이다. 송탄 신장점의 이코원 점주는 코코이찌방야 평택 험프리스점에서 약 3년간 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코코이찌방야에 대한 관심으로 창업하게 된 경우다.



지난 1일 경기 평택 특수 상권에 선보여진 카레전문점 코코이찌방야 송탄 신장점 내부는 68석으로 꾸며졌다. /농심

코코이찌방야는 송탄 신장점이 평택 험프리스점에서 쌓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코원 점주는 지역 상권과 고객층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 성공적으로 점포를 정착시킬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

동국제약이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에서 신제품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는 바르는 분말 형태의 제품으로, 동국제약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하이퍼-테카티트리’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은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티트리 오일, 알란토인 등 3가지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모공 및 피지 고민에 효과를 갖췄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인체적용시험에서 1회 사용만으로 모공 피지를 즉각적으로 83%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는 알란토 캡슐레이션 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제형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셀트리온 ‘CT-P41’ 공동판매

‘골다공증 치료제’ 내년 상반기 출시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맵) 바이오시밀러 ‘CT-P41’ 공동판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CT-P41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골 질환 분야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유럽 4개국에서 폐경 후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환자 479명을 대상으로 CT-P41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해 CT-P41과 오리지널 의약품 간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양사는 셀트리온이 구축한 과학적 임



지난 30일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오른쪽)와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가 골다공증 치료제 ‘CT-P41’ 공동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웅제약

상 결과와 대웅제약의 강력한 영업·마케팅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삼성전자·LG전자, 美 타임지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삼성전자, ‘네오 QLED 8K’ 등 뽑혀
LG전자, 6년 연속 최고 발명품 선정
‘시그니처 올레드 T’ 등 이름 올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제품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24 최고의 발명품’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2024년형 네오(Neo) Q LED 8K가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은 디자인 분야에서 각각 올해의 최고 발명품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타임은 네오 QLED 8K에 대해 오래된 콘텐츠를 선명하게 즐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됐다고 소개했다. AI 8K 프로세서의 업스케일 알고리즘이 일반 화질의 비디오를 선명한 8K 해상도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액자형 스피커 뮤직프레임에 대해선 “삼성이 홈 스피커를 아름다운 액자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 발명품’ 소비자 가전 부문에 선정된 삼성전자의 ‘2024년형 Neo QLED 8K’.

변신시켰다”면서 “스탠드 위에 세우거나 벽에 걸어 8인치x8인치 크기의 사진이나 인쇄물을 제품에 전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선으로 음악을 재생하거나 더욱 실감 나는 사운드를 위해 다른 삼성의 제품과 함께 페어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제품 중에서는 세계 최초 무선·투명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와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콤팩트 월 오븐’이 올해의 최고 발명품에 선정됐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는 소비자가 전 부문에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콤팩트 월 오븐은 가정용 제품 부문에서 각각 선정됐다.

타임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T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 작품을 감

상하거나 투명한 유리창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른 TV들과는 달리 전원의 연결선이 없어 케이블이 뒤엉킬 염려가 없다”며 “TV 후면에 매달려 있을 주변기기와 연결선은 모두 별도의 ‘제로 커넥트 박스’로 묶였다”고 설명했다.

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오븐 라인업 가운데 ‘콤비 월 오븐’에 대해 “한 수 위의 요리 기구”라며 제품에 적용된 차별화된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 제품은 ‘고메 AI’ 기술을 적용해 오븐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파악한 후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맞춤형 요리법을 추천한다

이로써 LG전자는 6년 연속 타임지 선정 최고 발명품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타임은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올해의 최고 발명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기보-천안시, 지역 스타트업 추가육성

기술보증기금이 충남 천안시와 지역 기술기반 스타트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천안시와 지난 30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천안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도 방식의 정책금융을 확산하고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



중소협동조합 실무이사회 추계세미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2024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콘크리트연합회 장식영 신임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새롭게 구성되고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앞으로 새롭게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왼쪽부터), 사공혜란·김준영 부부,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지난 30일 동두천시청에서 ‘더 2025 카니발’ 9인승 차량 전달식을 갖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 다섯 쌍둥이 가정에 카니발 증정

다자녀 가정 지원·사회적 책임 실현
동두천시에 3000만원 성금 전달

기아가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정 지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기아는 지난 30일 동두천시청에서 자연 임신을 통해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씨 부부에게 ‘더 2025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증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자연임신으로 잉태된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을 지난 9월 20일 출산했다.

이번 차량 전달은 기아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은 “다섯 생명의 탄생이라는 큰 축복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족에 도움을 드리고자 선물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아는 경기북부 공동모금회를 통해 총 3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동두천시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동두천시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차량 관련 물품 및 육아·용품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아의 대표 대형 레저용 차량(RV) 카니발은 ▲넓은 실내 공간 ▲뛰어난 편의성 등을 갖춰 패밀리카로 특히 다자녀 가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량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생활건강, 美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육성

美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와 협업

LG생활건강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VC)이자 스타트업 육성 전문기관인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DSH)와 협업해 국내·외 뷰티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LG생활건강은 오는 11월 1일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 코리아센터’를 개관한다. 해당 공간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이자

네트워킹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는 기술 개발, 마케팅, 투자, 해외 진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LG-드레이퍼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LG생활건강이 지향하는 기술 역량을 갖춘 글로벌 뷰티테크 및 소비재 스타트업을 함께 발굴한다. 또 스타트업 경쟁 TV 프로그램 ‘미트 더 드레이퍼’를 활용해 LG생활건강만을 위한 뷰티 트랙 에피소드도 별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NH농협은행, 농가 수확철 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지난 30일 이석용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경기 파주시 적성면 농가를 찾아 수확철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농촌과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용 은행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임직원들은 고추대 뽑기, 폐비닐 제거 등의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NH농협은행

중소연수원, HRMS·ISO 45001 인증 획득

〈인권경영시스템〉

공공연수기관 중 첫 동시획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이 인권경영시스템(HRMS)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3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조직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요구사항과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구조에 맞게 개발된 인증제도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작업 현장의 사고 발생 위험과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체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진업 원장(왼쪽)과 중소기업연수원 박은숙 원장이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제적인 경영시스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자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두 종류의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것은 공공연수기관 으로서는 전국 최초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글로벌로지스, 친환경 물류 생태계 구축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3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환경부, 롯데에어리퀴드에너지하이, 롯데SK에너지트,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 주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반주일 상명대 교수 ‘소비자권익증진상’

상명대학교는 반주일 글로벌경영학과 교수(오른쪽)가 지난 29일 개최된 사단법인 소비자화합회 창립 17주년 기념행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반주일 교수는 그동안 급발진 문제를 추적해 왔고, 이로 인해 국회 정책세미나 발제자 및 토론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상명대

오늘의 날씨

11월 1일 (금)
음력 : 10월 1일

수도권 날씨
12~20℃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57 | 해질 / 17:34

연천 9/20

동두천 9/20

가평 8/20

파주 9/19

서울 12/20

양평 10/19

인천 14/19

수원 13/19

용인 13/19

평택 12/20

백령도 14/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No.1을 넘어 Only.1으로
한양사이버대학원

한양대학교의



- ✓ 국내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 ✓ 글로벌 TOP100 6위
- ✓ 국내 최대 사이버대학원



클래스로

| 한양사이버대학원

대한민국 최초 온라인 박사과정 개원,
일반대학원 온라인 석·박사과정 / 경영전문대학원

2024 세계혁신대학 랭킹 TOP100 6위
(Culture/Values 부문, 국내 대학 중 최고 순위)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최대 재적학생 수(1,240명)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gs.hycu.ac.kr



※ 이 광고는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전용서체
“한양사랑체”를 사용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료다운로드 - 한양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한양사이버대학원 25학년도 1학기 석·박사과정 모집

2024년 11월 01일(금) ~ 12월 12일(목)

대학원	학과	
일반대학원	기계IT융합공학	법·행정
	도시건축공학	교육공학
	아동가족	디자인기획
	상담및임상심리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마케팅, FA&T, IT경영, 광고미디어 트랙)	

맞춤형
석사과정

학점/논문과정
선택 가능



입학지원

대학원 입학문의 | 02.2290.0700 / 카카오톡 :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



이복현 금감원장과 PF 구조조정



이 정 혁
西村브리핑

10월이면 반드시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다. 평소에는 존재감 없는 노래지만 10월의 마지막주에 대폭발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올해도 주요 라디오 채널 DJ가 한번 쯤은 꼭 틀어주고 있다. 이 노래는 연인과의 이별을 회상하며 가슴 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어쩌면 이 노래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을 상기하는 효과도 있다. 부동산, 금융쪽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이름이 떠오르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2년전 10월, 자본시장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던 강원도 공기업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시장에 큰 충격이 나타나고,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었다. 급기야 부동산 투기 열풍을 타고 급작스레 증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으로 위기가 확산되며 매달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

다. 중소건설사들이 연이어 부도가 나고, 수십만명의 건설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무리하게 PF 대출에 관여한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사들이 곤욕을 치르며 PF발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 때 ‘구원투수’로 전격 나선 것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도 아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이었다. 신속하게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라 모든 금융권역에 대해 평가한 뒤 옥석을 가려서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사실 금감원의 PF 대책은 PF 구조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구조조정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긴밀한 PF 구조조정 작업으로 위기를 단숨에 잠재웠다. 이복현 금감원장 덕분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두지휘한 구조조정 작업은 역대 가장 성공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 성공 요소를 보면 첫째 타 이밍이다. 통상 구조조정은 위기가 발생한 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지만 이번은 달랐다.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왜

냐하면 시장의 부담과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금감원장의 강한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두번째는 메시지 관리다. 자칫 저항이 예상되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한 결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세번째 체계적인 준비와 진행이다. 업권별로 상이했던 PF 평가 기준을 새로이 정비해 PF 부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전 권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의 직설적 화법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PF 구조조정은 이복현 금감원장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자칫 금융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감독과 대응으로 시장을 안정화 시켰다. 그 성과는 대단하다. 이제는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도 금융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

/ljin@metroseoul.co.kr

삼성과 인텔, 체면 대신 재기발랄함으로



기자 수첩
김 서 현
(산업부)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수순 밟고 있다. 이번 3분기 실적결과도 또한 번 전세계 산업계가 ‘AI’를 키워드로 역동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물론 호실적 잔치 속에서 우울한 기업들도 있다. 사장의 사과문까지 게재한 삼성전자와 오는 11월 초 발표를 앞둔 인텔이다.

두 기업은 푸른 로고 만큼이나 상황도 처참한 실적 부진의 배경도 닮았다. 주력 제품인 반도체의 기술혁신 실패로 인한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의 낙오,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등이 두 기업의 실적악화를 불렀다. 서로 다른 점이라면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로 받은 영향 수준 정도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충격적인 실적 부진의 영향을 다른 무엇도 아닌 ‘기업문화’로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등에서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까지 오르내리는 보고를 둔 불만이 불뚱 터지듯 쏟아졌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정작 최첨단 기술에 완전히 문외한이어서 실무진이 그들을 위한 ‘초등학생 수준’의 보고서를 쓴다는 주장이었다. 도전을 통한 혁신 대신 자본논리와 법률 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보수적인 판단이 오늘날의 삼성전자라는 게 증언이다.

인텔 또한 2분기 보수적이고 경직된 기업 문화가 폭로됐다. 지난 2022년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재기를 위해 영업된 립부탄 CEO가 8월 인텔을 떠나며 남긴 말이

폭풍을 일으켰다. 립부탄 CEO는 인텔이 사회에서 사임하며 “인텔의 위험회피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문화에 실망했다”는 말을 남겼다.

때로 위험도 높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 보다 자신있는 영역에 힘을 쏟으며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추구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기술 선도를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지금, 충격적인 실적부진을 드러낸 두 기업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종종 단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스타트업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그렇게 성공한 스타트업은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일단 해보자’ 시도한 게 성공의 열쇠라고 말한다. 삼성전자와 인텔이 배울 일이다. 거대 기업으로서의 체면 대신 스타트업의 재기발랄함이 필요한 요즘이다.

/seoh@

오늘의 운세

11월 1일 (금 10월 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은 바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48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60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내가 먼저 다가가라. 72년생 말만 잔뜩 시끄럽다. 84년생 이사는 무리하지 말고 형편에 맞춰서 해야.

37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49년생 삼라만상 계의 이치가 있으니. 61년생 가물에 단비가 내리니 좋은 일. 73년생 함께 하려거든 상대를 의심하지 말고 포용해야. 85년생 흥을 보기보다는 협조를 해주는 것이 도리.

38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라. 50년생 상처는 나이나도 훔쳐는 남는다. 62년생 흐지부지될 수도 있으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7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86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주변에 적이 없다.

39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면 마음을 다친다. 51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3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비람 잘 날이 없다. 75년생 사람이 많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87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40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해소된다. 52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64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 76년생 희망은 만들어 가는 것이니 실행하자. 88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41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3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마라. 65년생 연인에게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77년생 바라던 곳에서 소식 온다. 89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위 담을 수가.

42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으로. 54년생 상호 의견을 존중해줘야 대접받는다. 66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78년생 어렵다는 생각은 접고 있는 자신을 살피자. 90년생 가족에게도 주는 것도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람이 나을 것인데.

43년생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55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7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79년생 나의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 91년생 배우자와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

44년생 의외의 이득을 본다. 56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68년생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는 낭패. 80년생 자신의 학습 추이와 직장과정을 통해 보면 미래사가 예측될 것. 92년생 마음이 너그러우면 세상이 아름답다.

45년생 자고 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 57년생 폭로보다는 다독이며 상생하는 게 좋을 것. 69년생 진인사대천명이라 했다. 81년생 흔들리지 않는 적당한 경쟁력은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93년생 말 만큼 금전 문제가 풀린다.

46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루어 내는 날. 58년생 내게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70년생 사람을 믿는 것도 자산. 82년생 같은 경험을 했어도 아픔을 받아들이는 무게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 94년생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은 하루.

47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59년생 생각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픈 하루. 71년생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만족해야. 83년생 물이 들어오니 열심히 노를 저어 시작. 95년생 자기중심적 혼돈의 좁은 소견보다는.

김상회의四季 백세시대 운명학

바야흐로 백세시대다. 건강관리 잘하고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백세를 사는 게 꿈이 아니다. 사주로 보면 오행이 고르게 있으면 대체로 장수하며 신왕하고 식상이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 장수 시대가 되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자주 생겨나고 있다. 누구나 걱정하는 노후 빈곤이나 말년 고독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빈곤이나 고독에 시달려야 한다면 오래 사는 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운명을 볼 때는 인생을 길고 넓게 개괄적으로 보고 시기와 나이별로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나 중요한 건 손실은 적을 것이다. 어느 시기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일이 잘 풀리거나 막히지 않을지를 얻을 수 있다.

운세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다. 일을 도모하는 때와 기다려야 하는 때에 따라 움직이면 사는 게 편안하다. 노후는 길고도 길다. 나이 들어 재물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은퇴한 이후에 고독한 운세가 보인다면 일찍부터 자금 및 주변 관계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어느 나이에 어떤 운세가 올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운명의 운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은 살피지 못할지라도 잘살아간다면 다행이겠으나 고통스럽지 않게 살도록 이끌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의 운명에 관한 학술은 범위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심오하다. 그러기에 개체의 자아를 실제적 자신으로 보고 믿고 싶어 하며 좋다는 쪽으로 집착하기도 한다. 특히나 속칭 잘나갈 때 그러하다. 그럴 때 운명의 학습이 무용지물이 되니 미신이란 말 같지도 않은 용어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자신의 팔자 운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쓰는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4			1		8	3
	5			3				
			4			9	5	
2	4		6	1				
					2	7		1
								6
	8	7			2			
				8				7
4	3		5			8	9	

4					6	3	9	1
2				1				8
					9		4	
7						1		
		2	4		1	7		
			6					2
	7		1					
8				6				5
6	2	4	3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6	8	9	1	9	2	8	7
9	1	2	7	8	6	1	9	8
7	9	8	2	6	1	1	8	9
9	1	7	1	2	8	9	6	8
8	2	9	8	7	6	1	9	1
6	8	1	9	1	9	8	7	2
1	9	6	8	9	7	8	1	9
2	7	1	6	8	1	9	9	8
8	8	9	1	9	2	7	1	6

6	1	8	9	1	8	7	2	9
9	1	7	2	9	6	8	1	8
8	2	9	8	7	1	9	1	6
2	8	6	1	8	9	9	7	1
9	8	1	1	6	7	2	9	8
7	9	1	8	2	9	8	6	1
1	7	2	6	8	8	1	9	9
8	9	7	1	1	6	8	8	2
1	6	8	9	9	2	1	8	7



조수정 초대전

숨추며 노래
하는 빛들

Gallery 

2024. 10. 24(목) ~ 11. 4(월) 갤러리아람

관람시간 11:00 ~ 19:00 (전시 마지막 날 12:00 마감 / 매주 일, 월 휴관)

갤러리 아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문의 02.6743.3370

주최 Gallery  후원  동성제약주식회사 신안개발

“와인은 신이 내린 선물”... 조지아 와인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

“와인은 우리에게 시이자 종교이며, 일용할 양식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우리의 고조선 건국이 기원전 2300년인데 조지아(옛 그루지야)는 기원전 6000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부터 포도를 경작해 와인을 만들었다. 고고학적 유물로 증명되면서 조지아는 인류 최초의 와인 생산지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만나보고 싶어도 막상 기회가 잘 닿지 않았던 게 조지아 와인인데 서울에서 조지아 와인 축제가 열렸다.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 조지아 대사는 지난달 열린 ‘조지아 와인 페스티벌 2024’에 참석해 “조지아는 500가지 넘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 조지아 대사가 ‘조지아 와인 페스티벌 2024’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와인21

는 토착 품종을 바탕으로 놀랍도록 다양한 와인이 있다”며 “조지아인에게 와인은 단순한 상품 이상의 신성한 것으로 공동체 축하와 기쁨, 따뜻함을 나눌 때 함께하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조지아 와인 페스티벌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지아 와인은 처음이니 일단 알아가

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크베브리다. 와인을 저장하고 숙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달걀 모양의 전통 항아리다. 우리에게 땅에 묻었던 김치독이 있다면 조지아에는 와인독(?)이 있었다. 놀랍게도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고, 크베브리를 이용해 와인을 만드는 양조법은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 어떤 첨가물도, 양조자의 개입도 필요 없다. 크베브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일어난다. 씨 등 잔여물은 아래로 가라앉아 쌓이고, 위에는 맑은 와인이 익어간다. 조지아 와인이 다른 곳의 어떤 와인보다 고유의 개성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다. 크레브리로 양조한 와인은 와인 이름에도 크레브리를 명시한 경우가 많다.

다음은 와인을 만드는데 쓰이는 포도 품종이다. 와인의 발상지 답게 무려 525종이 넘는 토착 품종이 있다. 이 가운데 상업적으로 와인 양조에 주로 쓰

이는 품종은 30종 안팎이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다. 이번엔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각각 대표품종 하나씩만 제대로 익혀보자.

레드와인 대표품종은 사페라비다. 진한 색에서 연상할 수 있듯 숙성 잠재력이 탁월하다. 재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날 시음한 ‘키베리오니 사페라비 2020’은 진한 루비색에 체리, 블랙베리 향이 올라온다. 깊은 풍미로 여운은 길지만 타닌이 많지 않아 레드와인이라도 편하게 마시기 좋다.

화이트와인 대표품종은 르카치텔리다. 산미를 살리면서도 탄탄한 맛을 낼 수 있는 품종이다.

‘키베리오니 르카치텔리 2019’는 열은 벗겨낸 색인데 예상보다 무게감이 있는 화이트와인이었다. 신선한 과실 향에 좋은 산미로 우리 음식 가운데 빈대떡 등 전류와 잘 어울린다.

현재 조지아 와인은 한국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지아가 와인 수출의 전략적 지역으로 꼽은 7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조지아내셔널 와인 에이전시의 마케팅 담당자인 마리암 메트레벨리는 “한국의 조지아 와인 수입은 작년 42%나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 말 기준으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지아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한창 논의 중이다. 올해 말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와인에 있어서는 큰 장벽인 세금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조지아 와인을 더 낮은 가격으로 맛볼 수 있게 된다. 칠레 와인도 FTA 체결을 계기로 수입이 크게 늘었다. 두 나라를 잇는 항공 직항 노선도 검토되고 있다.

조지아 와인의 마지막 잔을 비우기도 전에 이미 내년 계획이 세워졌다. 직항 비행기를 타고 ‘와인의 고향’에서 맛보든, 한국에서 싸고 다양해진 조지아 와인을 마시든 내년은 조지아 와인을 만나는 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말 속에 깃든 편견

생활 반경 내에 눈엣가시인 남자가 하나 있다. 그에게 ‘공주X’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제 손으로 하는 것 하나 없이 늘 남을 시키려 들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의 말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누군가 저를 물심양면 도와줘도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서다. 아 그가 최악의 인간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하기 싫은 일을 전부 남한테 떠맡긴다.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나서 이름 대신 ‘공주X’이라는 멸칭을 하사했다. 한 가지 찝찝한 것은 그를 ‘공주X’이라고 부를 때마다 여성 혐오자가 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 녀석을 ‘왕자X’이라고 불러주자니 어쩐지 배알이 풀린다. 일단 ‘왕자X’이란 녀네임은 ‘공주X’처럼 타격감이 없다. 또 전자엔 경멸스러운 느낌이 희미하며, 녀석은 너무나도 명칭해 자신을 저렇게 불러주면 외려 좋아할 것 같다.

언젠가 학교 앞을 지나갈 때 남자 고등학생 한 무리가 저들끼리 장난이랍시고 서로를 ‘X발X아~. X신 같은 X.’라고 부르는 걸 본 적이 있다. 왜 저 사내 녀석들은 남자면서 동성 친구를 ‘놈’이 아닌 ‘넌’으로 일컫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싫어하는 남자애를 공주X이라고 부르는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달았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깃든 여성 혐오 때문이란 것을.

우리는 왜 사회의 절반을 이루는 여성들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됐을까. 미국 사회에 페미니즘 열풍을 일으킨 문화비평가 루산 게이는 저서 ‘나쁜 페미니스트’에서 그 혐오의 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음악, 영화, 문학에서 여성은 수시로 비하와 별시를 당한다”고.



나쁜 페미니스트
룩산 게이 지음/노지향 옮김/문학동네

래퍼 제이의 랩에는 ‘bitch(여성을 비하하는 속어)’가 쉽표나 마침표보다 더 자주 나오며, 방탄소년단 RM의 ‘눔답’이라는 노래에는 “그래 난 최고의 여자, 감질 / So X나게 잘해 감질 / 아 근데 생각해보니 감이었던 적 없네 / 감 떼고 임이라 부를게, 임질”이란 가사가 등장한다.

팝 음악이 너무나도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책하던 룩산 게이는 ‘나쁜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나를 따라다닐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를 환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이니까. (중략)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전부 옳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가 믿는 것을 지지하고, 이 세상에 뭔가 도움될 만 한 일을 하며 온전히 나 자신으로 남고 싶을 뿐이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분야에서 성 평등을 지지하는 한 당신은 페미니스트가 맞다고 저자는 말한다. 448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0

은퇴 프로젝트 ‘메리골드를 구하라’

박상금 지음/황소걸음

책의 저자는 지난 13년간 직장인 은퇴 교육을 통해 퇴직자 2000여명을 상담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해온 자타 공인 ‘은퇴 준비 전도사’ 박상금이다. 배우자의 창업 실패로 노후에 파산 위기를 맞은 저자는 6년간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끝에 위기를 극복하고 64세에 성공적으로 은퇴한다. 말의 힘을 믿는 그는 잿빛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인 메리골드를 필명 삼아 시인이 걸린 프로젝트를 수행하듯 성공적인 은퇴 전략을 세워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 은퇴 준비의 4가지 필수 요소인 사람(인간관계), 돈(노후자금), 일(평생현역),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노후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습관을 실천할 방법을 알려주는 책. 286쪽. 1만8000원.



정신병을 팝니다

제임스 데이비스 지음/이승연 옮김/사월의책

우울증으로 진료받는 사람은 한 해에 만 100만명에 달하며,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하는 ADHD 치료제는 지난 5년간 처방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했다. 각종 약물 처방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왜 우리의 정신 건강은 나아지는 커녕 점점 악화하기만 하는 걸까. 정신질환이 악물로 치료해야 하는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때 정신적 고통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은 눈앞에서 자취를 감춘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실업, 경쟁적 교육, 물질주의 세계관 등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데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고통을 개인화하고 의료화하며 상품화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같은 상처와 아픔을 공유한 정치적 연대의 가능성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376쪽. 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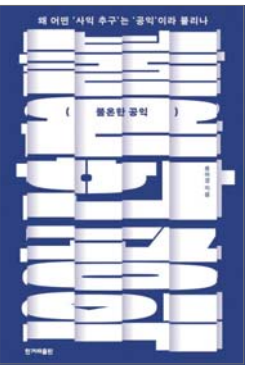


불온한 공익

류하경 지음/한겨레출판

수업권 침해해 이유로 고소당한 대학 내 청소 노동자,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법정에 선 집회 주최자, 시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했다는 명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가. 최근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공익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떤 ‘사의 추구’는 의심 없이 ‘공익’으로 불리고, 누군가의 ‘사의 추구’

는 ‘과격한 폐쓰기’로 여겨질까. 지배 세력이 볼 때 그 사의 추구가 정치·경제적으로 ‘위험하지 않아야’ 비로소 공익이라 부르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인 건 아닐까. 책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의 개념을 훑어본다. 316쪽. 2만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바이든, 선거 전까지 나오지 마”... ‘쓰레기’ 실언에 민주당 ‘부글’ /사진 뉴시스
▲ 러, 구글에 벌금 폭탄... ‘0’이 36개, 전 세계 GDP보다 많아

▲ 북한 “美·서방 러 위협 계속되면 불필요한 결정 내릴 것”
▲ 美 3분기 강력한 성장세에 고용지표도 굳건... 스물셋 굳히나?



▲ 유엔, “위안부 배상 계속 노력” 日 정부에 권고... ‘부부 동성’ 개정도 지적
▲ 하마스 “가자 영구 휴전 위한 모든 합의 등에 열려있어” /사진 뉴시스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단지내 조경 전경



곤충·나비·새 노니는 수생비오톱 대왕참나무·소나무 '숲세권' 만끽

아파트의 미학(美學)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 자랑
태양광 발전 등 첨단·자연 조화
다양한 테마 어린이 놀이터 설치

최근 방문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힐이문)'.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축단지답게 은색의 '힐스테이트' 로고가 부각된 커다란 문주가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단지의 입구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돼 있었다.

힐이문은 지하철 8호선 문정역, 5호선 개통역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다. 송파법조타운이 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위례신도시가 가까워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누리기가 편리하다.

송파 가든파이드까지 25분, 롯데마트 17분 거리다. 문정초등학교와 중학

교, 송파중학교, 문정고등학교 등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문정동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14개동, 1265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49㎡ ▲59㎡ ▲74㎡ 등 소형 타입 위주로만 공급됐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는 입주민을 위해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84㎡는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맞통풍이 가능하고, 환기가 용이하다.

다양한 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덕트 세척이 가능한 환기 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스템, 전력회생형 엘리베이터 시스템,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설치된다.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1431대(가구당 1.13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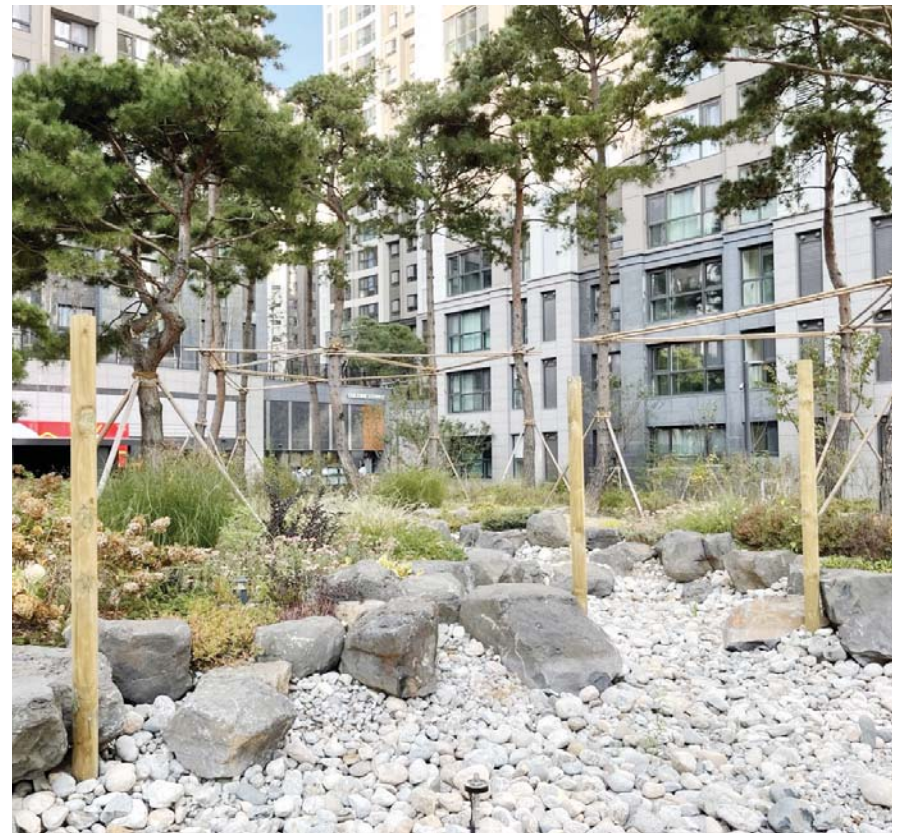
타워형이 위치한 라인에는 커튼월

록의 외관 디자인을 선보여 단지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은 단지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조각상 '블록 패밀리(Block Family)'는 단순히 조각으로 꾸며지기보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의 공간을 기대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고 지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성됐다.

또 다른 조각상 '행복 찾아 꿈 찾아'는 한적한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두루미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두루미의 검정색 부분을 파스텔톤 붉은색 계열로 바꿔 잔디 공간과도 잘 어울린다. 모든 감상자들이 각자 원하는 꿈과 행복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작품이다.

작품 옆에는 수생비오톱이 있었다. 깨끗한 물에서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곤충과 나비와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여러 식물을 심었다. 휴게 공간도



함께 만들어 자연 경관을 보며 휴식할 수 있다.

숲세권 아파트로서 단지 내 소나무, 대왕참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웰니스가든,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장지공원이 있어 근처 외곽 순환도로의 소음과 분진을 차단한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와 공간 연출로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는 실내골프장,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시니어룸 등이 있다. 어린이집도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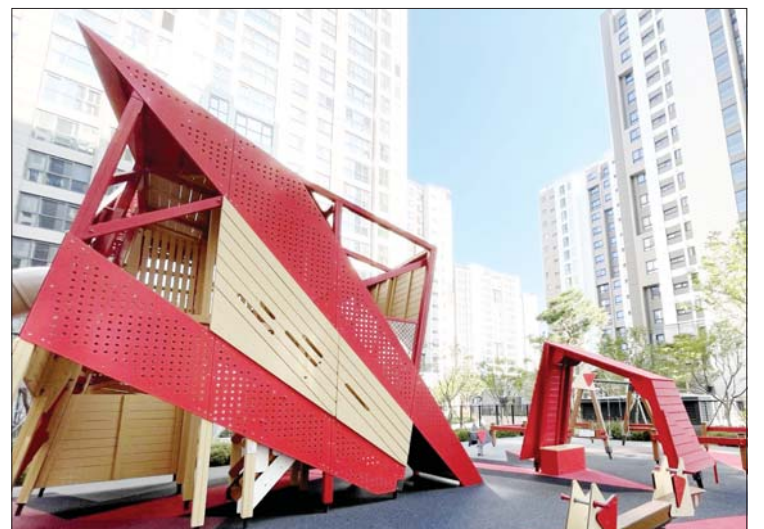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조각상 '행복 찾아 꿈 찾아'.



조각상 '블록 패밀리'.



어린이 놀이터.

/전지원 기자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승진
신성장동력 확보 매진
L1



Life

삼성·LG
美 타임지서
올해의 발명품 선정
L2



“피로개선에 효자역할 ‘톡톡’... 통증엔 역시 펭귄이 제일”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제일약품, 펭귄파스 ‘제일파프’

파스 명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국민 파스 ‘제일파프’가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84년 3월 16일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일쿨 파프’는 붙이는 형태의 진통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일쿨파프는 살리실산메틸이라는 진통 성분을 함유해 통증 완화에 효과를 갖췄다. 또 멘톨, 캄파, 박하유 등의 성분이 부기 제거 및 급성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항균 효능이 있는 티몰이 염증 발생 부위에서 소염 작용을 한다.

제일헬스사이언스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파스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고,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국내 파스 시장에 수입되어 있던 일본 제품들은 진입 장벽이 높았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제일쿨파프는 통증에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가격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서민들 피로 개선에 필요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제품의 효과·효능도 소비자 주목을 받았고 ‘바쁘다 바빠’, ‘내가 제일파프지’, ‘통증엔 역시 펭귄이 제일’ 등의 광고 문구를 씩씩하게 외치며 서로의 몸에 파스를 붙여주는 감쪽한 펭귄 캐릭터가 남녀노소 모두의 머릿속에 기억되면서 선풍적인 인기가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제일파프는 국내 파스 대명사로 자리잡았고 지금까지도 ‘펭귄파스’로 불리고 있다.

2024년, 추억의 ‘펭귄파스’는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올해 1월 1980년대 제품 광고 모델이었던 펭귄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40주년 레트로 패키지’를 출시한 것이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40년 전통의 펭귄 캐릭터를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소환해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펭귄파스가 앞으로도 통증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를 상징하는 펭귄 캐릭터를 중심으로 제작한 신규 광고도 공개했다. 과거 광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해당 광고에는 골프, 등산, 테니스 등 다양한 레저를 즐기는 펭귄들이 등장한다. 특히 급변하는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펭귄파스는 변치않는 제품력으로 소비자 곁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가 추억의 제품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새로운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마련하는 중이다. 특히 기존 약국 공급만 취급하던 유통 채널을 확대해 전 연령층 소비자에게 더욱 친밀

1984년 의약품 허가 ‘제일파프’ 40주년 맞아 진통성분 함유, 멘톨·캄파 등 부기제거에 도움 40주년 기념 펭귄 캐릭터 중심 신규광고 공개

‘의약외품’ 제일파프 쿨·제일파프 핫 추가 구성 CU편의점·다이소에 입점해 제품 접근성 높여

케펜텍·제일롱파프 출시 ‘파스명가’ 입지 굳혀 의료봉사 때 제일 쿨파프 기부 ‘사회공헌’ 앞장

하게 다가가고 있다.

현재 펭귄파스 제일파프는 안전상비약인 제일쿨파프와 의약외품인 제일파프 쿨, 제일파프 핫 등 세 가지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의약외품인 제일파프 쿨과 핫은 각각 두툼한 냉습포와 온습포를 사용해 부작함과 동시에 찜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어깨결림, 허리통증, 뻘, 타박상 등에 적합하다는 것이 제일헬스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들은 밀착포를 부위에 따라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사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안전상비약으로 분류돼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일쿨파프는 청량감과 냉찜질 효과가 우수한 습포제형 파스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이러한 제일파프의 강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성세대 소비자뿐 아니라 MZ세대까지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지난 2023년 10월 CU편의점 입점을 시작으로 제일파프 제품 접근성을 높였고 올해 3월부터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 출시 후에도 국내 최초 공기 투과선을 도입한 파스제품인 ‘케펜텍’, 손목과 발목에 감아주듯 부착할 수 있는 ‘제일롱파프’ 등 다양한 제형과 성



전국 CU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일쿨파프’(왼쪽부터), 의약외품 제일파프쿨, 의약외품 제일파프핫.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제일파프의 80년대 모델 펭귄을 다시 선보인다.

분을 갖춘 파스 제품을 연달아 선보이며 ‘파스 명가’의 입지를 굳혔다.

아울러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를 통해 지난 40년간 받은 국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에서 열린 글로벌 기부 행사 ‘2024 옥스팜 트레일워크’에 분사식 진통소염제 ‘제일파프쿨에어’를 후원했다. 이밖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진행되는 의료봉사에 ‘제일 쿨파프’를 기부하는 등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연말에는 2024년도 연간 판매 금액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를 비롯해 ‘케펜텍’, ‘제일롱파프’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다양한 제형과 성분으로 파프 제품군을 구축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문체부, ‘보조금법 위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손흥민 첫 우승 해낼까...토틸, 리그8 강서 맨유와 격돌 /사진 뉴시스

▲‘韓 유망주’ 김민수, 지로나 1군 첫 선발서 풀타임 활약
▲‘탐 위에 탐’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된다



▲프랑스서 한류 불꽃 확인...K박람회 성료 /사진 뉴시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기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0종 개발